기본연구
2018-08

DSI

대전 독립서점의 문화공동체적 역할과 활성화 방안 연구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기본연구 2018-08

대전 독립서점의 문화공동체적 역할과 활성화 방안 연구

한 상 헌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	• 한상헌 / 미래전략실 연구위원
연구보조	• 김지영 / 미래전략실 위촉연구원
조사원	• 김지완 / 홍익대학교 자율전공학부생

기본연구 2018-08

대전 독립서점의 문화공동체적 역할과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인 박 재 묵

발행일 2018년 1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 쇄 : 영창당인쇄사 TEL 042-626-7888 FAX 042-626-988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차 례

1장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방법 ····· 5

2장 독립서점에 관한 이론적 논의 ····· 7
1. 독립서점에 관한 개념 정의 ····· 9
2. 독립서점의 기능과 역할 ····· 11
3. 독립서점의 문화운동적 중요성 ····· 14

3장 독립서점의 현황 ····· 17
1. 국내 독립서점 운영 현황 ····· 19
2. 국내 대표적 독립서점들 ····· 25
3. 해외의 주목받는 독립서점들 ····· 37

4장 대전지역 독립서점의 특성과 실태 ····· 41
1. 대전 지역 독립서점·독립출판의 특성 ····· 43
2. 대전 지역 독립서점의 실태와 정책 요구 ····· 63

5장 대전지역 독립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79
1. 대전시의 정책지원 방향 ····· 81
2. 전략사업 ····· 82

참고문헌 ····· 86

표 차례

표 1. 행정구역별 독립서점 운영 현황 ····· 19
표 2. 독립서점 및 독립출판 관련 행사(2017-2018년 수도권) ····· 24
표 3. 독립서점 및 독립출판 관련 행사(2018년 비수도권) ····· 24
표 4. 특색있는 주요 독립서점(서울) ····· 27
표 5. 특색있는 주요 독립서점(경기도) ····· 28
표 6. 영남 지역 주요 독립서점 ····· 31
표 7. 호남 지역 주요 독립서점 ····· 32
표 8. 충청 지역 주요 독립서점(대전 제외) ····· 34
표 9. 제주 / 강원 지역 주요 독립서점 ····· 36
표 10. 대전 지역의 독립서점 ····· 43
표 11. 대전의 독립출판 현황 ····· 58
표 12.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 ····· 63
표 13. 독립서점과 독립출판사에서 운영중인 동호회 ····· 64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절차 ····· 6
그림 2.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본 독립서점의 기능 ····· 12
그림 3. 독립서점(동네서점)의 혁신적 잠재력 ····· 13
그림 4.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적 매개체인 서점과 그 영향 ····· 15
그림 5. 행정구역별 독립서점 운영현황 ····· 20
그림 6. 지역출판 및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모습 ····· 23
그림 7. 서울 연남동 사슴책방 ····· 26
그림 8. 경기도 이천의 독립서점 '오월의 푸른하늘' ····· 29
그림 9. 부산 샵메이커스 ····· 30
그림 10. 광주 파종모종 ····· 33
그림 11. 세종 단비책방 ····· 33
그림 12. 제주 소심한책방 ····· 35
그림 13. 미국 내 독립서점의 증가추세(2009-2016) ····· 37
그림 14. 일본 이와타 서점 ····· 38
그림 15. 대만 독립서점의 이벤트 비율(2014-2014) ····· 39
그림 16. 독립서점 '가까운책방' 내부 ····· 44
그림 17. 독립서점 '구름책방'의 내외부 ····· 46
그림 18. 독립서점 '도시여행자"의 휴점 알림 ····· 48
그림 19. 독립서점 '도어북스' 내부 ····· 49
그림 20. 독립서점 '삼요소' 내부 ····· 51
그림 21. 독립서점 '유어왓츄리드' 내외부 ····· 53
그림 22 독립서점 '우분투북스' 내외부 ····· 54
그림 23 독립서점 '이도저도' ····· 56
그림 24. 그림책서점 '프레드릭 희망의 씨앗' 내부 ····· 57
그림 25 '스토리밥 작가협동조합'이 출간한 책들 ····· 59
그림 26. '월간토마토'에서 출판한 책들 ····· 60
그림 27. 대전의 청년잡지 '보슈' ····· 62

DS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

1장

1.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기존의 출판 및 유통방식에서 벗어나 독특하고 다양한 주제를 지닌 독립출판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국 곳곳에 이러한 독립출판이 유통되는 독립서점이 생겨나고 있다.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은 거대 상업논리에 매몰되어 주목받지 못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을 발굴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수준을 넓히고, 영세한 문화창작자들을 지원하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의 사회적 관심을 고려할 때 잠재적 가치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전 내에서도 최근 몇몇 독립서점들이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젊은 문화 활동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도모하는 등 지역문화운동의 주체로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세종시의 경우 아직 독립서점이 없고, 독립출판 역시 뚜렷한 활동이 없는 상황이지만, 2017년 대형서점이 개장하는 등 책과 관련한 문화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독립서점에 관한 기초연구도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부산과 대구, 광주 등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독립서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 정책적 차원의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는데 비해 아직 대전시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은 미미하며 문화정책 차원에서의 구체적 현황 파악도 소홀하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책을 판매한다는 것에만 매몰되어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을 산업의 논리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립서점과 독립출판은 문화산업이나 경제적 영역에서 다루기보다 문화향유와 문화다양성의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성격이 더 크다.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와 문화운동의 관점에서, 그리고 정책적 관점에서 대전시와 세종시의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포함하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와 세종시에 근거를 둔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의 현황을 정리하는 기초 연구를 축적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아울러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의 문화적 가치를 탐구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려 한다. 이러한 작업은 대전·세종지역의 문화다양성 및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기초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문화향유의 흐름을 파악하여 대전·세종 지역 문화정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였다.

국내외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의 현황과 흐름 : 국내외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의 등장과 발달 과정, 현황과 흐름을 문화다양성과 문화운동 관련 이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대전·세종 내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의 기초현황 조사 : 대전·세종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독립출판 및 독립서점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 분야, 운영 특성, 협업 및 제휴 형태, 공동체 특성, 주요 활동내용 등을 파악한다. 또한 독립출판과 독립서점 운영자, 이용자의 태도 및 활동방식, 개선점 및 애로사항, 지원에 관한 요구수준을 살펴보았다.

대안적 문화운동으로서 독립출판 및 독립서점이 지니는 가치 :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의 지향성, 결속력, 문화적 파급력, 활동 내용을 분석한다. 아울러 독립출판 및 독립서점이 문화운동 차원의 의미를 확인하고, 기존의 문화운동과 비교·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1) 연구대상과 방법

대전과 세종에서 1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독립출판사, 독립출판 조합, 1인 독립출판인 등 독립출판 관계자와 독립서점 운영자, 이용자를 연구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 자료조사 : 독립출판·독립서점에 대한 기초 현황자료에 관하여 온라인(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카페, SNS) 조사와 선행연구 검토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 : 대전과 세종지역을 대상으로 독립출판·독립서점에 대한 기초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FGI, 심층면접조사 : 대전과 세종 내 독립출판 사업자, 독립서점 운영자, 이용자 등 10 여명을 대상으로 독립출판 및 독립서점 활동의 의미와 영향력을 파악하고, 지원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관찰 : 독립출판·독립서점의 활동과 관련하여 특별히 참조해야 할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되는 대전과 세종 내 독립서점 다섯 곳에 대하여 독립서점의 문화운동 방식과 독립서점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방식을 연구자가 직접 수회 참여하여 관찰, 기록하였다.

분야별 전략과제 발굴 : 장·단기 전략과제별로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일반적인 학문적 접근보다는 활용 가능한 실천적 방안을 강구한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2018년 11월 30일 완료 예정이다.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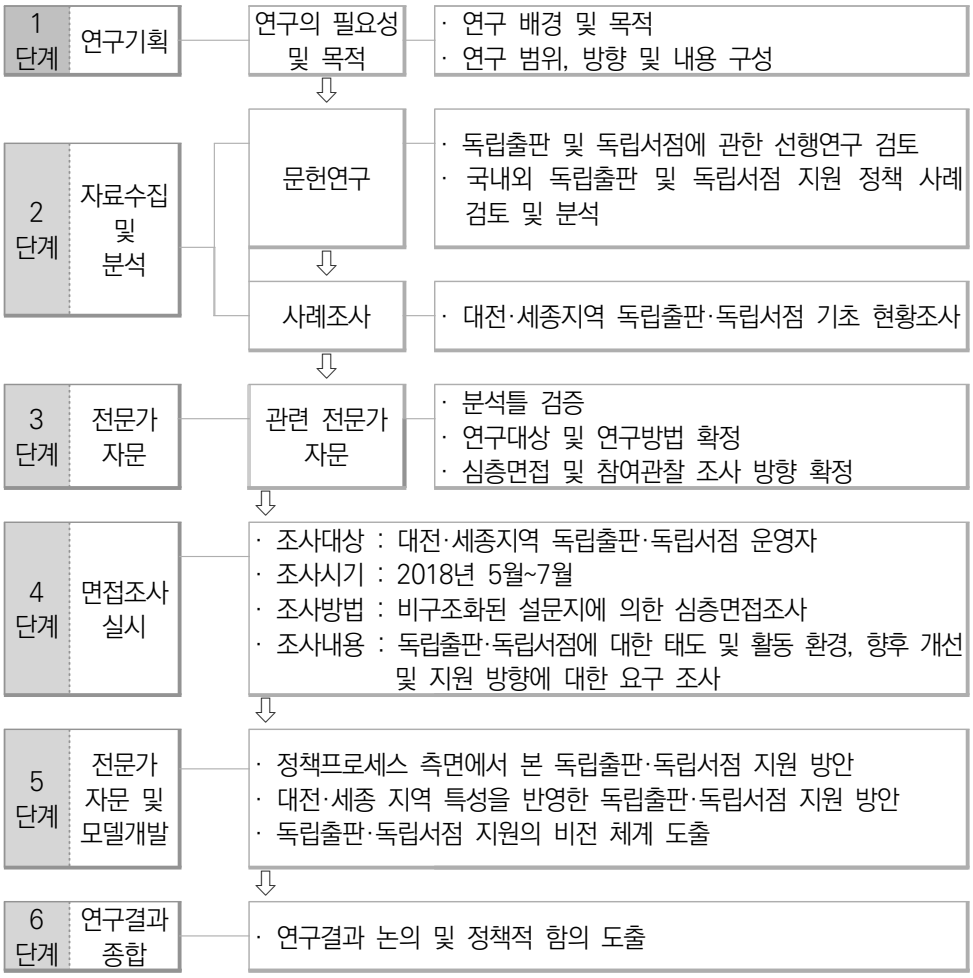
1 단계
연구기획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범위, 방향 및 내용 구성
2 단계
자료수집 및 분석
문헌연구
· 독립출판 및 독립서점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독립출판 및 독립서점 지원 정책 사례 검토 및 분석
사례조사
· 대전·세종지역 독립출판·독립서점 기초 현황조사
3 단계
전문가 자문
관련 전문가 자문
· 분석틀 검증
·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확정
· 심층면접 및 참여관찰 조사 방향 확정
4 단계
면접조사 실시
· 조사대상 : 대전·세종지역 독립출판·독립서점 운영자
· 조사시기 : 2018년 5월~7월
· 조사방법 : 비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심층면접조사
· 조사내용 : 독립출판·독립서점에 대한 태도 및 활동 환경, 향후 개선 및 지원 방향에 대한 요구 조사
5 단계
전문가 자문 및 모델개발
· 정책프로세스 측면에서 본 독립출판·독립서점 지원 방안
· 대전·세종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립출판·독립서점 지원 방안
· 독립출판·독립서점 지원의 비전 체계 도출
6 단계
연구결과 종합
· 연구결과 논의 및 정책적 함의 도출

그림 1. 연구의 절차

DSI

독립서점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독립서점에 관한 개념 정의
2. 독립서점의 기능과 역할
3. 독립서점의 문화운동적 중요성

2장

1. 독립서점에 관한 개념 정의

독립서점은 '독립'이라는 단어와 '서점'이라는 단어가 결합한 만큼 각각의 사전적 정의를 우선 생각해봐야 한다.

서점은 흔히 "책을 갖추어 놓고 팔거나 사는 가게"를 뜻한다. 하지만 책이라는 지식콘텐츠의 특수성을 살펴볼 때, 지역 서점은 해당 지역의 지식문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점으로써 단순히 책이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독립'이라는 단어가 문화 시장의 영역에서 쓰일 때는 문화의 각 장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다른 것에 예속하거나 의존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됨."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공통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독립서점은 "독립적으로 소유한 소매 서점" 으로 정의되기도 한다.(American Booksellers Association, 2011) 일반적으로 독립서점은 한 개의 실제 상점으로 구성되며, 개인, 비상장 기업, 협동 조합 혹은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된다. 또한, 거대 기업이 운영하며 많은 지점을 가진 체인 서점과 대조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Wikipedia: independent bookstore).

하지만 독립서점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기가 용이하지는 않다. 외국의 경우도 독립서점의 범위나 성격은 각국별로 다르다. 중국은 2018년 이후의 584개의 출판사 모두 중앙선전부에서 관리하는 국유출판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독립출판사 설립과 독립출판물 제작이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서점의 독립출판물 제작은 가능하기 때문에 2010년 이후부터 독립서점이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의 독립서점은 "주로 지역 주민이 주로 소유, 운영하는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통합된 서점을 뜻하며, 종종 비영리 단체 활동 및 연락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독립성, 휴머니즘, 인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다(有道首页: 独立书店). 신화(新和)서점과 같은 체인형 서점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며, 그 소유주는 개인,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다양하다. (이건웅·고민정, 2018, p.113)

독립서점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만에서는 특별히 '독립서점'이라는 공식적인 개념을 중시하지는 않으나, 독립서점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념이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다. 현재는 독립서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체인서점처럼 출판물을 상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독특하고 전문적이며 특정적인 출판물을 문화로서 공유하면서 운영하는 작은 서점"을 의미하지만, "자신만의 운영이념과 방식, 자신만의 테마와 특색을 지닌 서점들은 독립서점으로 볼 수 있고, 단일 서점이나 체인서점의 개념에 한하지 않는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6, p.)

결론적으로 독립서점은 대형서점과 달리 체인 유통망을 가지지 않고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지역서점이라는 의미에 포함되나, '독립된 출간물'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성 출판사들의 출판물을 유통하는 구조의 해당 지역 거점의 지역서점과는 다소 분리된 형태의 서점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1세대 독립서점인 '유어마인드'처럼 독자적으로 출판물을 기획하여 출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1)]

1) 한수진, 김상헌(2017)은 "개인이나 '1인 출판사'가 만들어 기존의 도서 유통망을 거치기 힘든 독립출판물을 주로 취급하는 서점을 '독립출판 서점' '독립서점' 등으로 부른다"고 정의한다.

2. 독립서점의 기능과 역할

독립서점이나 독립출판은 문화 정책적 관점에서 본격적인 학술적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널리즘 차원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독립서점에 관한 칼럼 “독립서점, 동네로 돌아오다”에서는 독립서점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조명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논의의 바탕이 되는 독립서점에 대한 정의를 ‘독립’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함의에서부터 찾고, 두 가지 차원의 독립,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베스트셀러로부터의 독립”을 제시한다.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은 대형 체인서점과 대별되는 개인의 소규모 창업 서점을 의미한다. 창업의 이유도 수익 창출 자체보다는 책과 관련한 다양한 동기인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베스트셀러로부터의 독립은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베스트셀러 판매로부터 벗어나, 개성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책을 선별하고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서점은 최근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추세인데, 독립서점마다의 고유한 콘텐츠를 활용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1인 홍보/마케팅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된 것이 이런 현상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런 독립서점들은 저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블로그 등을 통해서 각자의 서점 홍보에 적극적이며, 이용객들은 이런 채널을 통해 서점에서 접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입수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표현되듯 독립서점들은 책을 팔고 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직접 대면해 경청과 소통, 조언의 기능까지 담당한다.

그림 5.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본 독립서점의 기능

독립서점들은 독특한 공간 연출, 독자 중심의 여유로운 운영, 책 관련 행사 및 전시·공연 개최, 독자 공동체 형성 등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독립서점은 정보의 사회화, 민주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지역문화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 그림에서 제시되듯 독립서점은 오픈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여 사회혁신을 도모하는 요소들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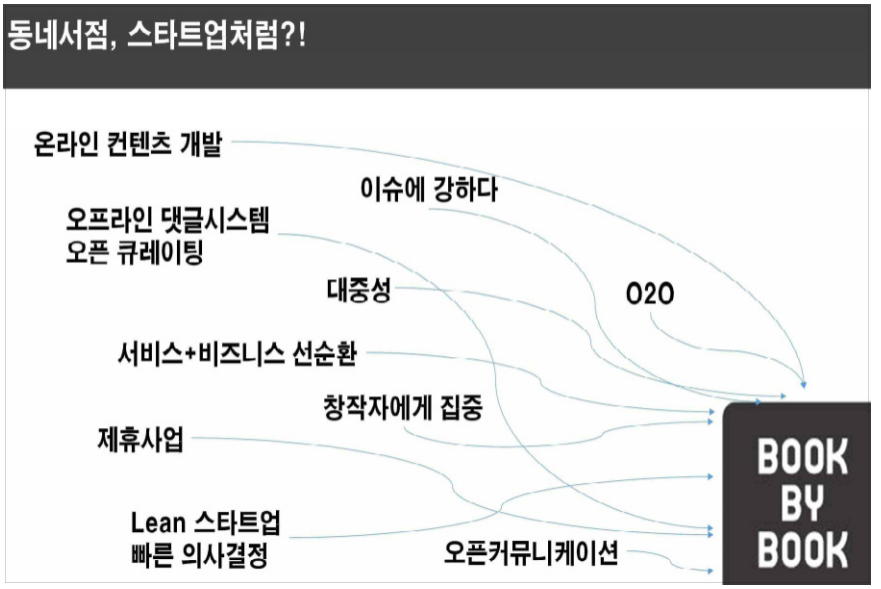

그림 6. 독립서점(동네서점)의 혁신적 잠재력

독립서점은 이용자의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의 도시재생에 문화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독립서점을 통한 도시재생 해외사례에 관한 것으로서 이건웅, 박성은(2017)의 연구에서는 타이완 타이베이 대학교 부근 원룽딩 서점거리의 형성·발전 과정을 독립서점의 문화운동 관점에서 살펴보고, 원룽딩 서점거리를 넘어 타이베이, 타이완 전체로 새로운 독서문화와 풀뿌리 문화가 확장할 수 있었던 요건들을 제시한다. 지역주민의 문화공동체 인식, 독립서점의 네트워크, 유통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 축제 및 행사 등 서점거리 특구화, 정책기관의 지원 및 보조정책 등이 독립서점을 통한 도시재생의 요건이다.

3. 독립서점의 문화운동적 중요성

문화운동은 흔히 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식적 행위로 정의되며, 기존 삶을 기반으로 하는 '체제내적 변혁운동'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대안적 문화운동'으로 구분된다.(강영석,2005). 문화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운동의 세력화를 꾀하는 주체에 따라 생산자 중심 운동과 수용자 중심 운동으로 탐구되어 왔고,[2] 이 중 수용자 중심의 문화운동은 문화소비 취행의 동질감에 기반을 둔 동호회의 성격부터 문화향유 방식의 대안을 모색하거나 문화정책의 적극적 개입자로 참여하는 것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그러나 문화는 문화생산과 소비, 그리고 그 매개체인 유통의 조건과 형식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현태로 생성되고 소멸한다. 문화는 생산과 수용, 유통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문화 생산물은 그러한 역동적 과정의 집약체다. 또한,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서점은 독자와 생산자 사이의 단순한 매개에서 그치지 않고, 각 분야에 영향을 주며 심지어는 다른 엔터테인먼트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문화의 변혁을 논하는 문화운동 역시 생산과 수용뿐만 아니라 문화 생산물이 만들어지고 배급되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문화유통 과정의 실천적 행위들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립서점·독립출판은 이처럼 문화의 생산과 수용, 유통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구체적이고 특정한 문화실천들이 표출된다는 점에서 상업적 범주로서가 아니라 문화적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대만의 사례처럼 문화적 도시재생의

2) 생산자 중심의 문화운동은 프랑크프루트학파의 비판이론적 관점과 그람시(A. Gramsci)의 헤게모니론에 입각해 지배계급의 문화권력에 대항하는 계몽적 성격으로 1970~1980년대 국내에서 인식되어왔고, '민예총'을 필두로 하여 예술창작과 공연, 영상운동 등을 통해 구현되어왔다. 1987년 민주항쟁과 1990년 전후 동유럽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신사회운동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문화 영역에서도 그동안의 생산자(창작자) 중심의 계몽적·저항적 문화운동뿐만 아니라 문화소비와 문화제도 영역에서 '문화정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수용자 중심의 문화운동이 본격화되었다(오세섭·한상헌, 2017).

주요한 주체가 되기도 하고, 독립영화처럼 대안적 문화운동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최근 우리사회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팬덤문화, 인디문화의 성격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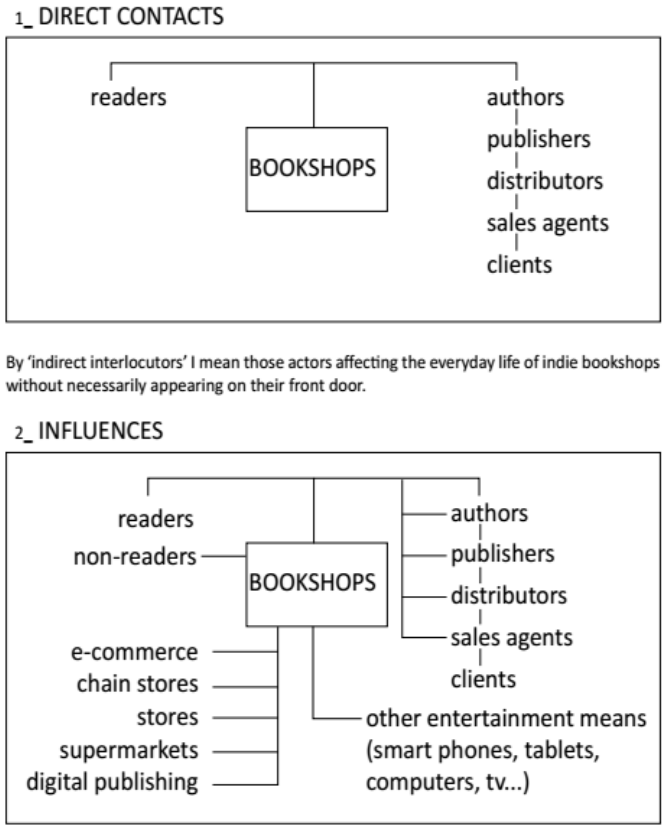

그림 7.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적 매개체인 서점과 그 영향

각국의 독립서점의 개념에서 관찰할 수 있듯 현재 독립서점의 역할은 단순한 도서 판매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는다. 독립서점들은 크게 지역사회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북 큐레이션을 통해 독자에게 다양한 분야의 독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서점에서

직접 출판사를 운영해 출판물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독자와 작가의 네트워크 형성에 다리가 되어 주거나, 지역 공동체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공익을 위한 자치적인 활동에 참여한다. 대형 체인과 온라인 서점에 맞서기 위해 맺어진 독립서점간의 연대는 효율적이고 다양한 문화운동을 기획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DSI

독립서점의 현황

1. 국내 독립서점 운영 현황
2. 국내 대표적 독립서점들
3. 해외의 주목받는 독립서점들

3장

1. 국내 독립서점 운영 현황

1) 지역별 현황

최근 국내에서는 독립서점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계간 '동네서점'을 발행하는 앱 개발업체 "퍼니플랜"이 35개월간 '동네서점지도' 인덱스 데이터를 분석·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동네서점지도에 등록된 독립서점은 총 401개점이다. 현재(2018.07.31.) 운영 중인 책방은 총 357개점(89.0%)이며, 휴점 및 폐점한 서점은 44개점(11.0%)이다. 최근 1년 이내 개점한 독립서점은 83곳(23.2.%)으로 한 주에 약 1.6개꼴이었다(개업일 정보가 없는 17개 서점 제외).

표 1. 행정구역별 독립서점 운영 현황

지역	서점 수		비율(%)	증감 수
	2017년	2018년		
서울	128	164	45.9	36
경기도	30	46	12.9	16
부산광역시	15	21	5.9	6
제주특별자치도	10	17	4.8	7
인천광역시	5	13	3.6	8
광주광역시	9	12	3.4	3
충청북도	9	11	3.1	2
강원도	7	10	2.8	3
경상남도	6	10	2.8	4
경상북도	7	10	2.8	3
전라북도	7	10	2.8	3
대구광역시	10	9	2.5	-1
대전광역시	6	8	2.2	2
전라남도	4	8	2.2	4
충청남도	3	5	1.4	2
울산광역시	1	2	0.6	1
세종특별자치시	0	1	0.3	1
합계	257	357	100.0	100

자료: 퍼니플랜 "2018 독립서점 현황조사"

독립서점 357곳 중 58.8%가 서울특별시(45.9%)와 경기도(12.9%)에 있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21%)와 대구광역시(3.9%), 제주특별자치도(3.9%), 인천광역시(3.6%), 충청북도(3.1%) 순이다. 서울(+36)과 경기, 인천광역시(+8), 제주특별자치도(+7), 전라남도(+4), 경상남도(+4) 순으로 많이 증가했으며, 대구광역시(-1)이 유일하게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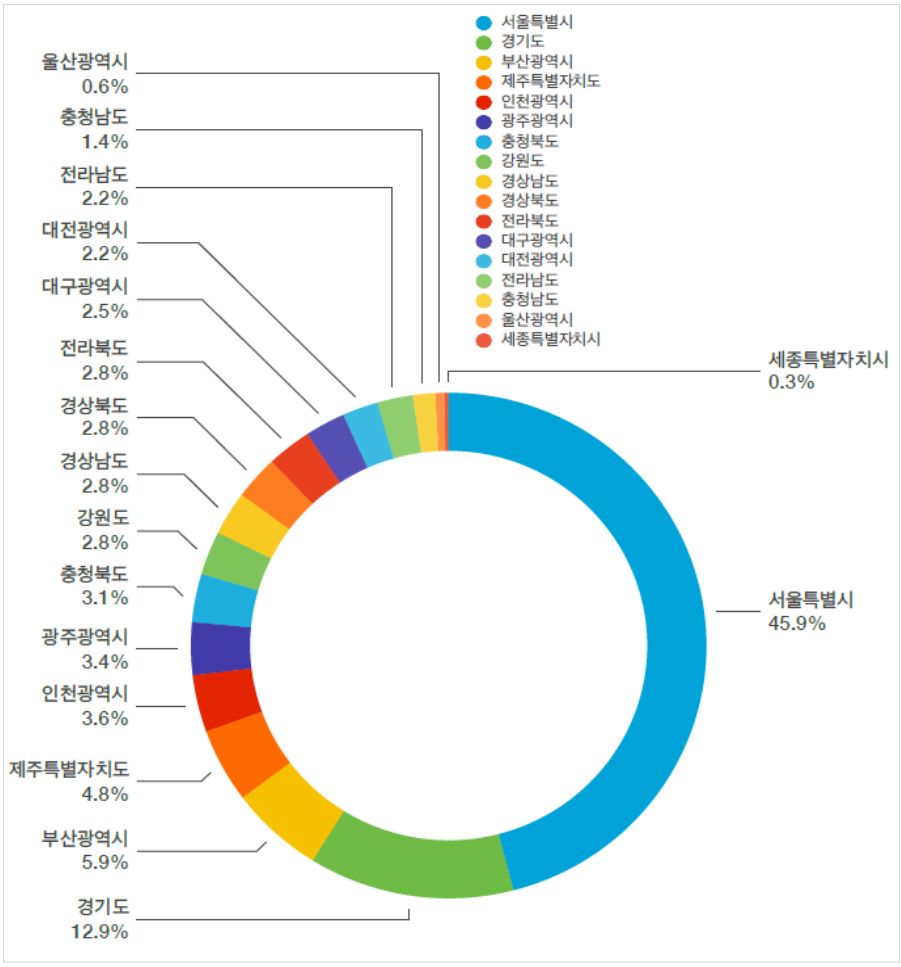

그림 5. 행정구역별 독립서점 운영현황(자료: 퍼니플랜)

2) 독립서점 및 독립출판 관련 행사

운영 중인 독립서점 중 독서모임(43.4%)을 가장 활발하게 열고 있었으며, 북토크(31.9%), 워크숍(26.4%), 공간대여(26.1%), 전시(23.2%), 공연(16%), 낭독회(14.0%), 마켓(11.8%) 순으로 정기적인 인문활동이 꾸준히 증가. 최근에는 심야책방(7.6%), 책추천(3.4%), 영화·음악 감상모임(3.1%), 정기간행물 발행(2.2%)이 늘어남. 적극적으로 독서 활동을 돕거나 다양한 문화를 함께 즐기고 알리는 역할에 나서고 있다.

(1) 도서 축제

독립서점 및 독립출판 관련 행사 및 축제를 살펴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독립서점, 독립출판 작가 및 제작자가 참여하는 '제4회 광주전남전북 북페스티벌 「오늘산책」'을 개최하였으며 이는 '매일산책', '도시산책' 행사로 나뉜다. '매일 산책'은 광주, 전남, 전북의 독립서점 10곳과 공공시설 2곳에서 릴레이로 열리는 문학작가 초청 프로그램이며, '도시산책'은 광주, 전남, 전북의 독립서점과 작가들이 참여하는 북페스티벌이다.

부천에서는 '제18회 부천 북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특히 한국출판인회의 소속 9개 출판사와 독립서점, 지역서점과 도서유통업 연합체인 부천서점업협의회가 참여해 체험 프로그램과 작가 릴레이 강연을 운영 중이다.

서울에서는 독립출판을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기 위한 북 콘서트인 '독립時 마포'와 국내 최대 규모의 독립출판물페어인 '언리미티드 에디션 – 서울아트북페어'가 개최되고 있다. '독립時 마포'에서는 독립출판의 매력과 책 제작과정, 창업 노하우 등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언리미티드 에디션 – 서울아트북페어'에서는 독립출판물 전시하고, 작가/제작자와 관람자가 '직접 판매 부스'를 매개로 만남을 가지며, 독립출판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독립출판물과 굿즈 판매, 음악공연 등 일반적 축제 혹은 마켓의 성격으

로 진행되었으나, 2015년부터 아트북페어로 전환하였다.

인천에서는 2018 문학페스티벌 「신바람, 동네책방」을 개최하여, 총 9개의 인천 동네책방(국자와주걱, 딸기책방, 나비날다, 책방산책, 책방모도, 연꽃빌라, 세종문고, 말앤북스, 북극서점)과 출판사(글누림, 다인아트, 소와다리)가 참가한다. 9개 동네책방들이 각자의 주제(자연, 그림이 있는 책, 페미니즘, 청소년, 시대정신, 동물복지, 실용도서, 글쓰기, 독립출판)로 북큐레이션 부스를 꾸민다. 책방 주인과의 특별 상담코너도 마련되어 독립출판이나 동네책방 운영에서부터 취미와 연애까지 재미있는 주제로 1:1상담을 할 수 있으며,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책 도장 만들기, 편백나무 독서대 만들기, 캘리그래피 책갈피 만들기 등)도 운영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호남지역 독립서점 10곳과 공공시설 2곳이 참여한 북페스티벌 '오늘산책'을 개최한다. 2016년 4월부터 4회차를 진행했으며, 매년 광주, 전남, 전북의 독립서점, 독립출판 작가·제작자가 참여하는 북마켓과, 책을 주제로 한 전시, 음악공연, 강연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축제는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는데, 독립서점과 공공도서관에서 릴레이로 열리는 문학작가 초청 프로그램인 '매일산책'과 북페스티벌인 광주, 전남, 전북의 독립서점과 작가들이 참여하는 '도시산책'이다.

제주도에서는 독립서점 이아북스에서 '이아북스 북토크'를 진행한다. 지역 출판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지식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3차례 북토크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는 제주 사람들의 삶과 언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두 번째는 그림책 '제주이야기' 시리즈를 살펴보았으며, 세 번째는 해녀, 어머니의 또 다른 이름이란 주제로 해녀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대전에서는 올해 4월 휴점했던 독립서점 도어북스가 9월에 재개관하면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도어북스 북콘서트'를 진행하였다. 독립출판 서적 작가를 초대하여, 독립풀판과 창작에 관심이 있는 20대-30대 시민 1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2) 정책토론회

2016년부터 지역출판, 지역서점, 동네서점, 독립서점을 아우르는 포럼,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18년 개최된 “지역출판 및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의 경우 ’지역서점의 변화와 미래‘, ’지역서점, 출판사 및 도서관의 공존‘과 같은 지역서점과 지역출판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발제와 ’서점의 진화‘, ’서점인들의 축제 ‘서울서점인대회’‘, ’동네서점 스타트업처럼?‘, ’동네서점의 제자리 찾기‘ 등의 독립서점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지역출판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2018년 9월 6일부터 5일간 진행된 2018수원한국지역도서전에서는 〈지역문화와 지역출판 컨퍼런스〉가 열렸다. 기조강연에서는 일본에서 30년을 이어 온 지역출판도서전인 ‘북인돗토리’의 사례를 제시했고, 이어서 〈지역출판의 현재와 미래〉, 〈지역 책, 지역 도서전의 사회문화적 의미〉 등 지역출판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발제 후에는 출판인과 독자의 교류공간을 통한 네트워크 사례로 지역출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고, 또 지역분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역출판의 당위성과 미래에 대해 논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그림 6. 지역출판 및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모습

표 2. 독립서점 및 독립출판 관련 행사(2017-2018년 수도권)

행사명	개최시기	개최지	행사내용	주최·주관
18th 부천 북페스티벌	2018.9	부천시청	◦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체험, 전시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체험 프로그램과 작가 릴레이 강연을 운영하고 대표도서 판매	부천시
독립時 마포	2018.9	서울광장 함께쓰는 무대	◦ 독립출판을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기 위한 북 콘서트 개최	서울도서관, 서울특별시
언리미티드 에디션 - 서울아트북페어	2017.12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 국내 최대 규모 독립출판물페어 ◦ 제작자와 관람자가 '직접 판매 부스'를 매개로 만남 ◦ 아트북페어 참가자 출판물 리뷰, 강연, 북콘서트 등 독립출판 관련 프로그램 진행	유어마인드, 서울시립미술관
2018 문학 페스티벌 '신바람,동네책방'	2018.9	인천아트플랫폼광장, 한국근대문학관	◦ 인천의 9개 동네책방이 각자의 주제로 북큐레이션 부스 운영 ◦ 1:1 상담부터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

표 3. 독립서점 및 독립출판 관련 행사(2018년 비수도권)

행사명	개최시기	개최지	행사내용	주최·주관
광주전남전북 북페스티벌 '오늘산책'	2018.9	독립서점(10곳) 및 공공시설(2곳)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북마켓과 책을 주제로 한 전시, 음악공연, 강연 프로그램이 접목된 북페스티벌 ◦'매일산책','도시산책'의 두 개 섹션 구성	오늘산책
이아북스 북토크	2018. 8.10.11	이아북스	◦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독립서점 ◦ 지역출판시장 활성화와 지역사회 지식문화 발전을 위해 세 차례 북토크 진행	예술공간 '이아', 제주문화예술재단
'도어북스' 북콘서트	2018.9	도어북스	◦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으로 개최 ◦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독립출판서적 작가 초청 강연을 진행	도어북스

2. 국내 대표적 독립서점들

1) 수도권 지역

(1) 서울 지역

서울 지역의 독립서점은 마포구와 용산구에 집중되어 있다. 용산구 이태원에는 '스토리지북앤필름'과 '별책부록', '고요서사' 등 널리 알려진 독립서점들이 운영 중이다.

'스토리지북앤필름'은 독립출판물 전문 서점이다. 이곳에는 독립출판물 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기반인 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진 서적들이 기다리고 있다. 독립잡지 〈워크진〉은 꾸준히 발행하고 있는 사진집이다. 22편으로 마지막 인사를 한 시즌 1이 한 사람이 담아낸 한 도시의 모습을 45~60여 장의 사진으로 구성했다면, 새롭게 발간한 시즌 2는 도시의 모습을 여러 사람들의 필름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으로 채우고 있다. (최준란, 2017)

'별책부록'은 독립출판물 전문 서점이다. 책방 주인이 영화광이라고 한다. 이곳에 가면 영화 관련 서적들이 많이 눈에 띈다. 영화평론집 〈CAST〉를 출간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 관련서가 많다. 이 책방은 처음 홍대 근처에 있다가 이곳으로 이사 왔다. 모든 게 빨리 변하는 서울에서 이태원(특히 이곳 해방촌)의 20세기 말 주택가 분위기는 이 서점만의 고유한 특징이 될 수 있었다. (최준란, 2017)

2015년에 문을 연 '고요서사'는 출판사 편집자가 차린 문학 전문 독립서점이다. 주로 사회과학 서적을 편집했던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전시하고 팔기 위해 독립서점을 차렸다. 주로 문학서를 다루며 800여 종의 책 대부분이 소설, 시, 수필집이다. 독특한 대표의 관심을 열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작가를 초대해 각종 행사, 특강을 많이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있다.

(최준란, 2017)

서교동에서 시작해 최근 연희동으로 자리를 옮긴 '유어마인드'는 독립서점의 1세대 격이다. '유어마인드'는 기존 출판사에서 공급하는 도서 외에도 서점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출판하는 책을 포함해 개인이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출판물을 내는 독립출판물까지 취급한다. 또한 아트북페어를 주최하는 등 독립출판 제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전시·판매, 독자와 직접 만나는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사적인서점'은 '한 사람을 위한 큐레이션 책방'을 모토로, 신청서 작성 후 서점에서 주인과 상담하면 한 시간가량 약 7일~10일 후 처방된 책을 택배로 받을 수 있는 예약제 독립서점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 주로 시집을 취급하며 저녁엔 바bar 영업을 병행하는 '다시서점(용산구 소재)', 현대미술에 관한 독립출판물을 다루며, 독립출판 작가와 독자가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는 '얄라북스(종로구 소재)', 북디자이너와 협업하여 판매와 출판을 병행하는 오디너리북샵(성북동), 사슴책방(연남동)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림 7. 서울 연남동 사슴책방

표 4. 특색있는 주요 독립서점(서울)

서점명	개점 년도	소재지	전문 분야, 인문활동 및 특성
유어 마인드	2009	서울시 마포구	-1세대 독립서점으로 우리나라 독립서점의 대표 -독립서점인 동시에 독립 출판물 발간 -2009년부터 아트북페어 '언리미티드 에디션'을 매년 주최
땡스북스	2011	서울시 마포구	-디자인 전문 큐레이션 서점 -출판사와 함께 주제가 있는 기획 전시 및 〈금주의 책〉, 〈땡스,초이스〉 등 운영
사적인 서점	2016	서울시 마포구	-책 처방프로그램 운영 -'한 사람을 위한 큐레이션 책방'으로, 처방된 책을 택배로 받을 수 있는 예약제 독립서점
사슴책방	2016	서울시 마포구	-그림책, 아트북, 그래픽노블 등 시각예술 서적 작품 소개. 드로잉 및 창작 그림책 워크숍 진행
위트앤 시니컬	2016	서울시 서대문구	-시인 '유희경'이 운영하는 시집전문 독립서점 -대형서점보다 많은 시집 보유, 신간 시집 신속 비치 -시낭독회, 시쓰기 강좌 등 다양한 시 프로그램을 운영
오디너리 북샵	2014	서울시 성북구	-독립출판물을 주로 취급하는 서점으로 책 만들기 워크숍 등 운영 (현재 활동종료)
얄라북스	2014	서울시 성북구	-사진집, 일러스트, 그래픽 서적 중심. 책방 겸 독립출판사로 랩, 스튜디오, 에이전시, 광고, 출판 겸업
별책부록	2014	서울시 용산구	-문화, 예술, 건축 관련 단행본을 주로 취급하며 'CAST'라는 자체적인 영화비평잡지 발간 -소규모 워크숍 진행
다시서점	2014	서울시 용산구	-시·에세이와 독립출판물을 중심으로 판매
고요서사	2015	서울시 용산구	-소설·시·에세이로 서가의 중심을 채우는 '문학 중심 서점' 지향. 소설·시 낭독회, 독서모임, 워크숍 등 개최
스토리지 북앤필름	2008	서울시 용산구	-여행, 사진, 독립출판의 교집합을 찾는 서점으로 소규모 독립출판물과 해외서적, 중고책을 주로 취급
라이너 노트	2016	서울시 마포구	-음악가가 쓴 책, 음악가 평전, 음악을 주제로 한 소설 및 산문 등 음악관련 책과 음반 취급 -밤에는 서점 안에서 라이브 공연이 열리며, 음악관련 강연 및 악기를 배움 프로그램 운영

(2) 경기 지역

경기도에서는 '마샘'과 '오월의 푸른하늘'이 널리 알려져 있다. 마샘은 협동조합서점 모델로 주목받는 '사단법인 마중물'이 협동조합의 형식으로 만든 서점이다. '오월의 푸른하늘'은 외양간을 리모델링해 만든 독립서점으로, '시골책방'을 표방하며 마을 독서모임 회원에게 공간을 내어주거나, 마을 주민과 아이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등 마을 공동체 문화공간을 지향한다.

표 5. 특색있는 주요 독립서점(경기도)

서점명	개점 년도	소재지	전문 분야, 인문활동 및 특성
책방서울	2018	성남시 분당구	-그림책 저작권 에이전시'울 리터러리'가 운영하는 그림책서점
오 피큐알	2016	수원시 팔달구	-독립출판물과 디자인, 아트북을 취급하며 출판사를 겸하여 운영
마그앤드래	2017	수원시 권선구	-어린이 전문 서점으로 낭독모임개최
리지블루스	2017	수원시 영통구	-심리 전문 서점으로 심리학과 정신건강 관련 책 소개 -심리상담과 독서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
생각을 담는 집	2018	용인시 처인구	-출판사 '생각을담는집'이 운영하며 직접 출간 도서 소개 -독서모임, 북토크, 책 처방, 북스테이 운영
인생서점	2016	의정부시 민락동	-인문학 전문 서점으로 워크숍, 드로잉 및 글쓰기 모임 등의 인문활동 진행
오월의 푸른하늘	2018	이천시 마장면	-마을 공동체 문화공간 지향, 헌책방의 역할 -북스테이 운영
마샘	2017	인천시 남동구	-갤러리, 서점, 공연장 등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의 특성을 지님 -마중물문화광장이라는 자발적 시민 협동조합이 운영
발전소책방	2018	파주시 문발동	-마을살이와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집중한 숍인숍으로 만든 작은 책방
오래된서점	2017	파주시 상지석동	-헌책방, 플리마켓과 북스테이를 제공

그림 8. 경기도 이천의 독립서점 ‘오월의 푸른하늘’

2) 비수도권 지역

(1) 영남 지역

영남 지역에서는 주로 부산과 대구에 독립서점이 활발히 운영 중이다. 대구 중구에 위치한 '더폴락'은 인디문화를 지향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독립서점 운영자와 독립출판 제작자의 모임 '대책마련'을 만들었다. 동네에서 만들어지는 소품을 판매하는 소셜마켓을 운영하고, '아마도 생산적 활동'이라는 독립출판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그림 9. 부산 샵메이커스

표 6. 영남 지역 주요 독립서점

서점명	개점 년도	소재지	전문 분야, 인문활동 및 특성
시인보호구역	2012	대구시 북구	출판, 독립서점을 함께 운영하며 월간 '시인보호구역' 발행, 워크숍 진행
고스트북스	2017	대구시 중구	-국내외 예술 도서를 중심으로 제안하는 셀렉티드 북스토어
더 폴락	2012	대구시 중구	-독립출판물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소셜마켓'을 지향
책방숲	2016	부산시 동래구	-소규모 서점 겸 그래픽디자인스튜디오입니다. 디자인/예술 서적과 독립출판물을 판매
북그러움	2017	부산시 부산진구	-독립출판물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으로 독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큐레이션 시스템과 공유 서가 보유
프롬	2011	부산시 금정구	-독립출판물, 수입서적, 소규모 디자인팀의 굿즈를 취급 -독립출판서점 프롬더북스에서 프린트 편집숍으로 업종 변경
詩집	2015	부산시 보수동	-시인이 운영하는 낭독서점 -인문학 도서, 소설, 희곡집과 창작집 등을 판매. 작가와의 만남, 시 낭독모임와 독서모임 개최,
커뮤널 테이블	2016	부산시 기장군	-독립출판물, 수입서적을 취급하며 서점 대표가 직접 큐레이팅하는 독립서점으로 주말에만 오픈
이터널 저니	2017	부산시 기장군	-여행, 철학, 인문, 식음, 예술에 대한 다양한 책, 전시회와 작가와의 대화 진행 -책 검색 시스템 대신 디테일한 서가 분류로 공간을 둘러보며 문화와 취향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공간
샵메이커즈	2010	부산시 금정구	-독립출판물은 물론, 기성 출판물까지 다양한 책 판매,책 구입후 차를 마시며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메이커스 까페' 운영, 디자인 문구 판매, 관련 전시
봄날의 책방	2017	통영시 봉평동	-지역 출신 예술인의 삶과 문화자산들을 다룬 다양한 책과 자료를 판매

(2) 호남 지역

호남 지역의 독립서점에서는 광주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의 독립서점인 '파종모종'은 독립출판물을 기획 제작하는 '파종'과 독립출판물, 작가 작업물, 인디 음악을 다루는 '모종'이 결합된 공간으로 광주, 전남, 전북의 독립서점 10여곳이 함께 진행하는 '오늘산책'이라는 북페스티벌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표 7. 호남 지역 주요 독립서점

서점명	개점 년도	소재지	전문 분야, 인문활동 및 특성
북카페 숨	2015	광주시 광산구	-카페와 작은도서관을 함께 운영하는 독립서점으로 일반 서적 외에도 지역출판물에 따로 서가를 할당해 취급
라이트 라이프	2018	광주시 동구	-독립출판물과 일부 디자인,예술, 영화 분야의 출판물을 취급
책과생활	2016	광주시 동구	-인문, 예술을 중심으로 자연과학, 디자인, 에세이, 독립출판물까지 다양한 장르를 취급하고, 꾸준히 인문 강좌 개최
파종모종	2015	광주시 북구	-독립출판사를 겸하는 독립서점으로 지역중심 콘텐츠에 집중해 '오늘산책'이라는 북마켓 진행
연지책방	2016	광주시 북구	-회원제 무인서점으로 운영 -연지출판사와 함께 운영하는 독립출판 서점으로 각종 독립출판물 및 대학교재를 위탁판매
삼삼한 책방	2018	광주시 서구	-소규모 복합 서점으로 단행본과 독립출판물 취급 -북토크와 워크숍 정기적으로 개최
심다	2016	순천시 조곡동	-독립 출판물, 그림·여행 책 진열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저자 초청 강연 진행
그냥과 보통	2016	순천시 금곡동	-영화상영회, 필사모임, 여행과 역사책 읽기 모임 등의 소규모 모임 진행
살림책방	2017	전주시 덕진구	-책방 겸 교회. 인문학 서점을 표방하며 수익금 중 일부를 아프리카 ngo단체로 기부
유월의 서점	2016	전주시 완산구	-자연, 생태, 농사, 귀농에 관한 서적을 메인으로 취급하며 영화, 필사, 사진수업 등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

그림 14. 광주 파종모종

그림 15. 세종 단비책방

(3) 충청 지역

충청 지역의 독립서점은 청주시와 천안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독립서점에는 '숲속작은책방'이 있다. 최초의 가정식 서점으로, 북스테이를 함께 진행하는 숲속작은책방은 괴산군에 위치한 작은 서점이다. 숲속작은도서관과 함께 책방을 운영하며, "작은 책방, 우리 책 쫌 팝니다!"라는 전국의 작은책방 지도와 북스테이를 담은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단비책방'은 세종시 1호 독립서점으로, 역시 북스테이를 함께 운영한다. 출판계를 독식한 대형 서점에 맞서 서점과 북스테이를 결합한 아트하우스와 같은 새로운 방향을 개척한다.

표 8. 충청 지역 주요 독립서점(대전 제외)

서점명	개점 년도	소재지	전문 분야, 인문활동 및 특성
숲속작은 책방	2013	괴산군 칠성면	-숲속작은도서관과 함께 운영 -북스테이 진행
단비책방	2018	세종시 전의면	-세종시 최초의 독립서점으로 북스테이 가능
책방 허송세월	2015	천안시 동남구	-새책, 헌책, 소규모 독립출판물 판매 -캘리그라피, 드로잉 수업 등 다양한 워크숍 진행
곰곰이	2004	천안시 서북구	-어린이 전문서점과 어린이 신문사로 출발해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과 클리닉, 토론마당 등 진행 -어린이/청소년 인문학 서점
소소한책방	2016	천안시 서북구	-문화공간 '산새'와 함께 운영하는 인문학 서적 중심의 동네책방 -새 책보다 헌 책을 주로 취급
마이 페이버릿 띵즈	2016	청주시 상당구	-독립출판서점 및 핸디크라프트 등 각종 워크숍, 전시, 공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워크룸을 운영
홀린	2014	청주시 청원구	-사진책과 독립출판물 전문 서점으로 운영하다, 서점을 접고 사진도서관의 형태로 변경해 운영
하늘문고	2014	충주시 주덕읍	-'책이 있는 글터'의 분점으로 인문학 강좌, 작은 전시회, 북콘서트, 독서모임 등 다양한 강좌와 문화행사 운영
온다책방	2015	충주시 교현동	-소규모 출판물과 독립출판물, 국내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 취급 -시즌별로 독립출판 북토크와 워크숍 정기적 개최
느티나무 헌책방	2006	홍성군 홍동면	-그물코 출판사가 함께 운영하는 헌책방 -무인으로 운영되며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기획

(4) 제주 지역 / 강원 지역

제주도의 대표적인 독립서점은 '소심한 책방'과 '인공위성 제주'이다. '소심한 책방'은 제주도의 독립서점 1호로, 제주 매거진 등 지역의 독립출판물을 비롯해 베스트셀러, 어린이책 등을 판매한다. 지역예술가와 협업한 문구류, 소품 등을 판매한다.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독립서점인 '인공위성 제주'는 기부된 책으로 만들어지는 '질문' 서점이다. 기부할 책을 가져가 어떤 주제든 하나의 질문을 주인에게 던지면, 주인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특이한 시스템이다.

그림 16. 제주 소심한책방

표 9. 제주 / 강원 지역 주요 독립서점

서점명	개점 년도	소재지	전문 분야, 인문활동 및 특성
깨북	2016	강릉시 교동	-독립출판물 전문서점, 독립출판 대행
라바북스	2015	서귀포시 남원읍	-사진집, 여행책 위주의 독립출판서점 -여행사진집을 직접 출판함
인공위성 제주	2017	서귀포시 안덕면	-블라인드북과 여행관련 독립출판물 판매 -질문모임 등의 워크숍 진행
책방무사	2017	서귀포시 성산읍	-독립출판물을 주로 취급하는 독립서점 -북촌에서 제주로 이전
완벽한날들	2017	속초시 동명동	-게스트하우스를 함께 운영해 북스테이가 가능
동아서점	1978	속초시 교동	-일반출판물부터 아동서적, 독립서적과 잡지까지 다양한 책을 입고해 둠 -서점 나름의 기준으로 책 추천, 안내, 분류
무용담예술상점	2015	원주시 중앙동	-독립출판물과 각각의 이야기가 담긴 소품을 판매
소심한책방	2012	제주시 구좌읍	-독립출판물과 소설, 에세이, 인문, 여행, 제주 특산품 취급 -심야책방, 북토크, 공연 등의 인문활동 진행
라이킷 (Like it)	2014	제주시 일도동	-독립출판전문서점 -전시회 진행
만춘서점	2016	제주시 조천읍	-기성출판물을 주로 취급함 -음반, 자체 제작 소품도 함께 판매
굿라이프	2017	춘천시 효자2동	-독립출판물 일부와 일반출판물 취급, 독서 토론 등 워크숍 -동네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며 지역사회운동가나 예술인의 매개 역할

3. 해외의 주목받는 독립서점들

미국에서 독립서점의 의미는 서점체인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독립서점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 독립서점이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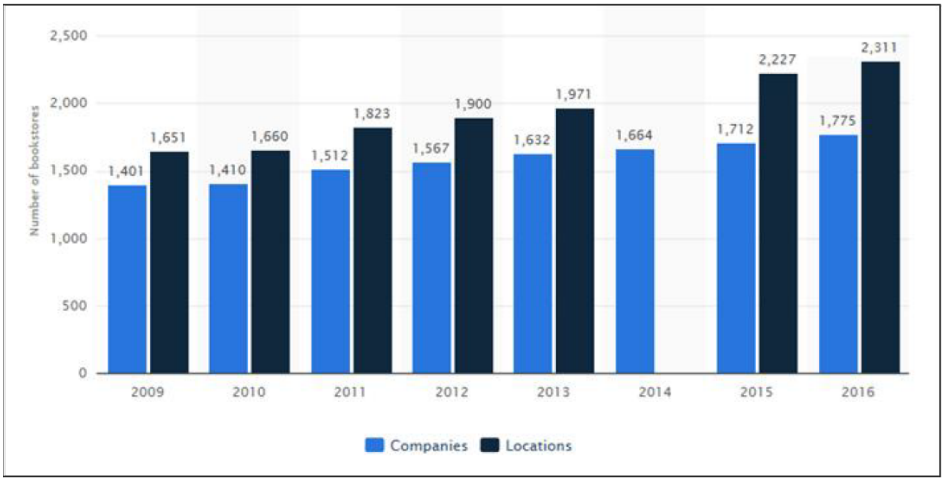

그림 13. 미국 내 독립서점의 증가추세(2009-2016)

일본의 경우 특별히 독립서점으로 지칭되지는 않지만, 이와타서점 등 우리 독립서점과 유사한 형태이면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성공사례가 많다. 홋카이도의 스나가와시에 위치한 이와타서점은 40평 규모의 동네책방으로, 1만 엔을 내면 그 금액 내에서 손님에게 맞는 책들을 선택해 집으로 보내주는 '일만엔선서(一萬円選書)'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림 14. 일본 이와타 서점

독립서점이 대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사례는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에 있는 원뤄딩 서점거리가 꼽힌다. 이 거리를 중심으로 독립서점이 뭉쳐 자생적으로 독서문화와 출판문화를 견인하고 있다. 2005년을 기점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독립서점거리는 학구열의 뿌리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국립타이베이대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만의 색깔을 창조하고, 이러한 이미지를 결합시켜 독립서점이 자생하는 서점거리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각인함으로써 문화적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다(이건웅·박성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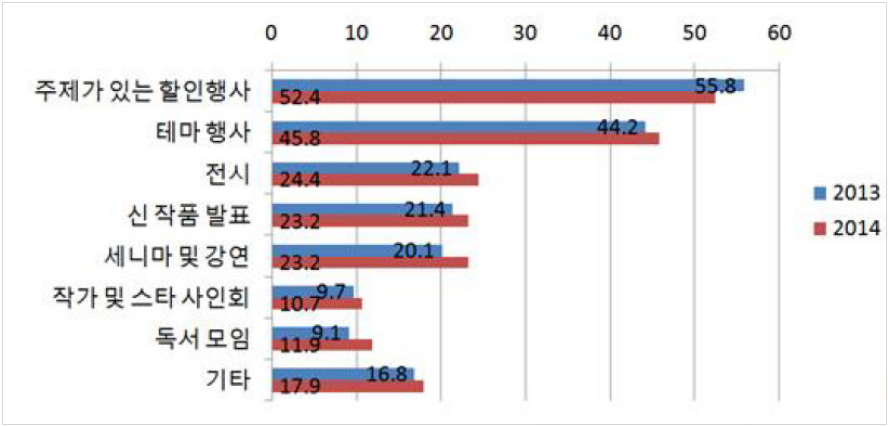

그림 15. 대만 독립서점의 이벤트 비율(2014-2014)

정책적으로 독립서점 지원이 가장 적극적인 곳은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국립도서센터에서 안정적인 서점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점에 대해 광범위한 지원정책을 펼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프랑스, 대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은 모두 민간영역에서 독립서점주간 등을 통해 독립서점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과 독립서점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한 서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서점교육 등 지역민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독립서점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노력중이다.

DSI

대전지역 독립서점의 특성과 실태

1. 대전지역 독립서점 · 독립출판의 특성
2. 대전지역 독립서점의 실태와 정책요구

4장

1. 대전 지역 독립서점·독립출판의 특성

1) 대전 지역 독립서점의 현황과 특성

2018년 9월 현재 대전시 지역에는 '가까운 책방', '구름책방', '도시여행자', '도어북스', '삼요소', '유어왓츄리드', '우분투북스', '이도저도', '프레드릭 희망의씨앗', 총 9개점의 독립서점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10. 대전 지역의 독립서점

서점 명	소재지	전문 분야	주요활동	비고
가까운책방	중구 대흥동	그림책, 그래픽노블	북토크, 심야책방	
구름책방	동구 대동	그림책, 독립출판물	독서모임, 공연	2018년 8월 이전 재개점
도시여행자	중구 대흥동	여행	북토크, 심야책방, 전시, 여행모임	2018년 8월 휴점, 이전 재개업 준비
도어북스	중구 대흥동	독립출판	워크숍, 전시, 공연	
삼요소	서구 갈마동	독립출판	공연, 독서모임, 글쓰기모임, 작가만남·강연, 영화모임	
유어왓츄리드	유성구 어은동	독립출판	독서모임	2018년 7월 휴점
우분투북스	유성구 어은동	자연, 생태, 건강, 먹거리	독서모임, 공간대여, 책추천·정기구독, 도농교류	
이도저도	유성구 신성동	인문사회과학, 그림책	독서모임, 심야책방, 공간대여	
프레드릭 희망의씨앗	유성구 원신흥동	그림책	독서모임, 워크숍, 공간대여	

자료 : 퍼니플랜 '동네서점지도'에서 재구성

❍ 대전 지역에서 운영 중인 독립서점을 직접 방문해 운영방식을 관찰하고, 서점의 목표나 지향점 등을 운영자에게 물은 결과 다음과 같이 다양한 특색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가까운책방

2017년 11월 8일 개점한 중구 대흥로의 독립서점이다. 가까운 책방의 김신일 대표는 문화예술의 중심인 대흥동에서, 누구나 지나가다 쉽게 들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한다. 서점의 이름인 '가까운 책방'은 지친 일상에서 위로받고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책과 독자 사이의 적절한 거리를 나타낸다. 완전히 밀착되진 않아 각자의 사이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거리라는 뜻이다.

주로 취급하는 서적은 그래픽 노블로, 그림과 글이 함께 있는 책은 전부 아이들이 읽는 만화책일 것이라는 인식을 깨고, 그래픽노블이란 장르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보여주기 위해 서점을 채웠다. 만화라는 편견에 갇혀 그 책의 무게를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으나, 글과 그림이라는 표현방식은 이야기를 전하는 매개체일 뿐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시작이었다. 하나의 작품을 대할 때, 그것이 소설이건 만화건, 단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틀만으로 주 소비층을 규정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또한 일반 서점에서 취급하는 그래픽노블 서적이 한정적이라는 안타까움도 있었다.

그림 16. 독립서점 '가까운책방' 내부

매체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많은 독자가 다양한 장르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김신일 대표의 큰 목표 중 하나기도 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가까운 책방을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일부 베스트셀러뿐만이 아닌 더 다양한 책이 소비자(독자)와 만날 수 있으려면 다양한 형태의 접촉 방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그 방법 중 하나로 함께 인문사회과학분야 책을 읽고 토론하는 청소년 독서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익숙하지 않은 책방이라는 공간을,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까운 책방'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서점은 김신일 씨가 직접 읽은 책들 중,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책 위주로 채운다. 한 권 한 권을 애정을 담아 추천할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서점의 주 고객층은 대흥동을 찾는 20, 30대 젊은 층이며, 이것은 대전 원도심에 인접한 가까운 책방이 가진 이점이기도 하다. 문화예술의 거리가 있는 대흥동에서 예술의 한 장르인 '그래픽노블'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독립서점이라는 정체성을 제시하기에도 적합하다.

(2) 구름책방

대전 동구 대동에 위치한 독립서점으로, 2017년 5월 5일에 개점했다. 구름책방이라는 이름을 달고 영업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책방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가 5년이 넘어간다. 대전에서 소외된 지역인 대동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봉사활동을 함께 하던 작은 모임이 대동초등학교의 몇몇 어린이들과 만나게 된 것이 시발점이었다. 2012년부터 매주, 장소를 옮겨가며 꾸준히 이어가던 인연이 결국 구름책방이라는 독립서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처음 공간을 빌려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들을 들여놓았던 것이 출발이었기 때문에, 독립서점을 내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구름책방은 '그림책 서점'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주로 책방을 채우는 장르는 국내 그림책, 외국 그림책과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들의 독립 출판물이다. 그림책들은 직접 해외에서 구매해 들어오거나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며, 독립출판물들은 비치해 달라고 작가들이 먼저 전자우편으로 연락해 오기도 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기존 출판사의 책들을 조금씩 들여놓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좀 더 다양한 이유로 발걸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이다. 질적, 예술적으로 좋은 책들을 비치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

구름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조각구름 협동조합은 대동이라는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목표로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구름책방 외에도 구모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또 비슷한 취지의 공간을 더 여는 것도 계획 중이다.

그림 17. 독립서점 '구름책방'의 내외부

책방지기인 송봉규 씨는 누군가 책방에 오는 데에는 여러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책을 구매하기 위해서라면 빠르고 편리한 인터넷 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점을 찾는 이유에는 일상에 대한 보답, 답을 찾기 위한 과정, 문제 해결을 향한 의지 등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구름책방을 꼭 책을 구매하기 위해 오는 공간뿐만이 아닌 각자가 가진 고민에 대한 지지를 보낼 수 있는 대안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책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모임이 여럿 있다. 영화 관람, pause 모임(책방에 모여 스스로 계획했던 일을 하고 헤어지는 작은 프로그램), 드로잉 수업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선정해 읽어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독서모임이 그것이다. 책방의 수익금은 지역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기금으로 사용된다.

(3) 도시여행자

2012년 겨울에 처음 문을 연 대전광역시 대흥동의 여행카페 겸 서점이다. 처음엔 여행도서관으로 시작해 2013년부터는 여행 서점으로 모습을 바꿨다. 이 서점을 다른 책방들과 다르게 만드는 단어는 '여행'이다. 1,2층으로 공간을 분리해 1층에서는 독립서점을, 2층에는 여행관련 서적들을 들여놓아 카페라운지를 운영한다.

책을 들여놓는 방식은 다양하다. 독립출판물뿐만 아니라 기성 출판사의 책들, 베스트셀러, 여행 관련 서적까지 진열된 책들의 스펙트럼이 꽤 넓다. 여행 서점이라는 전문성에 갇혀서 한정적인 공간으로 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행 서점이라는 이름 덕에, 같은 관심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묶어주는 구심점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의 정기적, 비정기적 모임도 꾸준히 열리고 있고, 여행 일정에 대한 팁을 얻거나 공유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이다.

서점보다는 카페나 여행 도서관으로서의 모습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어가려는 것도 그 이유다. 단지 '여행 책을 파는 독립서점'에 머무르기보다는 대흥동을 기반으로 원도심에 문화예술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힘쓰는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이다. 작은 카페이지만 공공기관이나 프로축구팀과 협업해 콘텐츠를 생산하고, 나아가 시티페스타와 여행페스타 같은 공연, 포럼과 전시가 함께하는 자체적인 여행 페스티벌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 역시 대흥동 내의 상권을 그대로 활용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축구 여행자, 장터 유람

기, 청춘 여행자 등의 서점 내부에서 능동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눈에 띈다. 또, 대전 내의 독립서점을 모아 안내책자를 기획하는 등의 독립서점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도시여행자의 경우에는 대흥동의 심화된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인 결과는 결국 임대료와 지가상승의 부작용을 일으켰다. 임대차 보호법이 지정한 5년이 지나 도시여행자도 원래의 공간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책은 결국 또다른 임대사업이 될 뿐이라며, 도시여행자의 김 대표는 또 다른 대안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민간주도형 시민자산화'라는 지속가능한 방식을 연구하며 도시여행자는 2018년 말, 공간을 옮긴다. 건물 매입 외에는 안정적인 공간을 가지고 운영을 이어나갈 방법이 없는 지역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공간에 투자하고 운영을 해나가는 방식은 새롭고 흥미로운 제안이다.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도시여행자는 서점과 카페뿐만 아닌 호스텔, 문화예술 창작공간까지 갖춘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찾아올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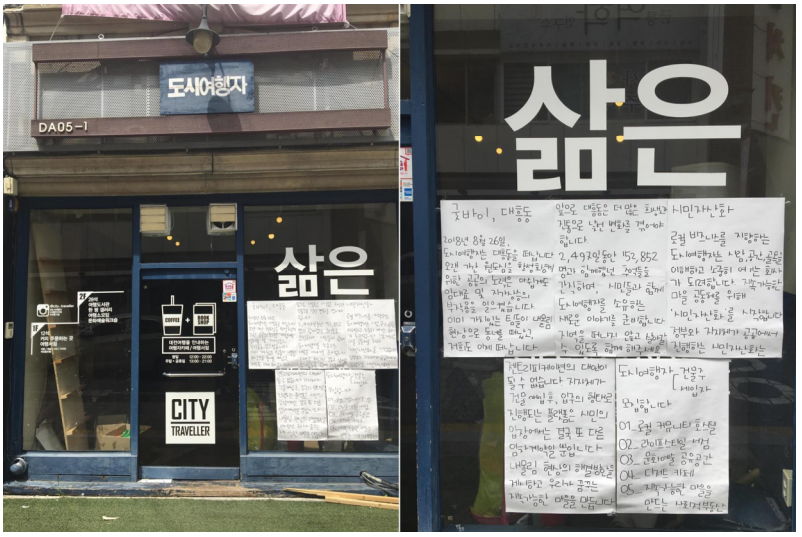

그림 18. 독립서점 '도시여행자'의 휴점 알림

(4) 도어북스

대전 중구 테미로에 2014년 6월에 개점한 독립출판 전문서점이다. 디자인, 그래픽 관련 잡지와 작가들의 독립출판물들로 작은 공간이 가득 채워져 있다. 옆으로 나뉜 공간에는 작은 책상이 있어, 잠시 앉아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다. 크진 않지만 책방 안에서 꾸준히 워크숍이나 전시, 공연을 진행하고 있고, 더 안쪽의 작은 공간에는 디자인사무실도 꾸려져 있다.

도어북스라는 이름은 '문'이라는 대상이 가지는 의미에 집중한다. 문을 닫으면 마니아들이 찾는 독립적인 공간이, 문을 열면 모든 사람이 교류할 수 있는 사랑방이 된다는 뜻이다. 책을 많이 읽던, 그렇지 않던 간에 책에 호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싶다는 박 대표의 바람이 담겨 있다.

박지선 대표가 이곳에 독립서점을 개업한 이유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독립출판물을 접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매번 찾는 책을 구하러 서울로 올라가기를 몇 번, 그러다 결국은 대전시의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독립출판물을 취급하는 서점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림 19. 독립서점 '도어북스' 내부

독립출판이라는 단어에는 기성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지만, 역시 순수한 독립출판물 판매와 워크숍 진행만으로 서점을 꾸려나가기는 쉽지 않다. 어려운 서점 운영을 편집디자인 외주를 받아 메꾸기도 한다.

도어북스는 독자와 가까운 서점이지만, 독자와 작가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서점이기도 하다. 서점을 찾은 손님이 책을 구매하면, 꼭 책과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기획부터 편집까지 스스로 끌고 나가야 하는 독립출판인 만큼, 작가에겐 독자의 피드백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도어북스는 그래서 책을 구매한 손님의 사진과 간단한 에피소드를 적어 작가에게 전해준다. 서로에게 책 너머의 숫자로, 글자로만 존재하던 독자와 작가가 거리를 좁혀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이다.

도어북스는 단지 '독립출판 전문서점'이라는 이름 안에 머물지 않는다. 이메일을 통해 작가들에게 직접 비치 신청을 받고, 또 책방에 두고 싶은 책들을 직접 골라 들여놓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한 박 대표는 나아가 책을 함께 만들어 보는 워크숍을 진행해 보기도 했다. 서점을 찾는 사람들에게 직접 책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선물한 것이다. 콘텐츠 기획부터 내용 작성, 편집까지 함께한 것은 '책을 쓰는' 행위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같은 맥락으로 글쓰기 강좌와 셀프 퍼블리싱 강좌도 꾸준히 진행된다. 또한 '아티스트북'의 대전 창작자들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5) 삼요소

대전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독립서점으로, 2017년 12월에 문을 열었다. '커뮤니티 공간' 개념의 독립서점으로, 삼요소라는 이름은 커피, 책, 맥주라는 서점 주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세 가지를 뜻한다.

삼요소는 독립출판물만을 비치하는 서점은 아니다. 오히려, 서점 주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서적들을 선별하고 분류해 전시하는 공간이다. 단지 판매하

는 책으로가 아니라, 전시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미 누군가의 의도가 들어간 책들이 되는 것이다. 그에 맞게 각 책장에는 단정한 글씨로 정리된 책의 분야나 저자가 붙어 있다. 또, 꽂힌 책 사이사이를 둘러보다 보면 서점 주인의 추천 메모를 발견할 수 있기도 하다. 대형 서점에서 벗어난 일종의 작은 책 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겠다. 서점 주인이 직접 큐레이팅하는 독립서점은 크게 보면 자본, 그리고 획일성에서의 독립으로도 볼 수 있다는 조 대표의 말은 설득력이 충분하다.

서점의 간판에서부터, 서점 안 곳곳에서 서점 주인이 직접 골라 써 붙인 책 속 문장들과 마주할 수 있으며, '서서비행', '위리드' 등의 정기적으로 읽은 책을 정리하고 다른 독자들과 나누는 모임을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에는 예술영화를 상영하고, 영화 토론 모임이 열리기도 한다. 또 함께 쓴 글을 읽고 합평하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작가 초청 강연도 꾸준히 열린다.

그림 20. 독립서점 '삼요소' 내부

(6) 유어왓츄리드 (You are what you read)

대전 유성구 어은동에 위치한 독립서점으로, 현재는 휴점 중이다. 서점의 이름은 “당신이 읽는 것이 곧 당신이다”는 뜻으로, 누군가 읽었던, 혹은 읽는 책을 통해서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까지도 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유어왓츄리드는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을 통해 사람들이 지식을 나누고 소통하는 서점, 공동체의 지식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커뮤니티 서점이 되고자 한다.

서점은 크게 두 가지 공간으로 운영된다. 일반 서가에는 판매중인 도서들과 독립출판물, 잡지, 단행본들이 진열되어 있다. 광범위한 분야의 책들을 전부 들여놓는 대형서점과는 다르게 선정해 들여놓는 책 한 권마다 서점 주인의 의도가 들어가 있어 특별하다. 또 다른 공간은 바로 공유 서가인데,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스무 권정도 가지고 오면 서점에서 책 주인에게 책장을 내어주는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그렇게 공유된 책은 1000여권. 그렇게 공유된 책장은 판매나 대여가 되지 않을 뿐, 서적 공유를 신청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책 주인의 소개와 추천 이유도 함께 책장에 적어 두어 책을 기부한 사람의 삶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장이라고 할 만 하다. 책을 기부하는 것은 독자의 생각도 함께 기부되는 것이라고 김 대표는 표현한다.

어릴 적 친구가 책을 추천해 준 김송희 대표의 경험에서 영감을 얻어 유어왓츄리드라는 서점 겸 도서관은 그 문을 열게 되었다. 단순히 책만 사고파는 의미없는 공간이 아닌, 책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커뮤니티’를 서점 안에 들여놓기로 한 것이다. 책을 매개체로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 서점을 방문하는 개개인의 이야기가 얽히고설킨다. 그건 결국 유어왓츄리드라는 공간의 이야기로 하나로 뭉쳐진다. 공동체의 지식이 개인에게 머무르다 소멸되지 않고, 구성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점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북서브스크립션’

서비스이다. 일종의 책 큐레이션 서비스로, 독자의 필요에 맞춰 책을 선정해 집으로 배달해주는 형태이다. 인터넷 검색이나 베스트셀러에 의지하는 책 선택을 벗어나, 조금 다른 시각으로 책을 추천하고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방식이며, 그 중 한 주제로는 '글을 쓰는 여성들'이라는 텀블벅(tumblbug) 프로젝트[3]를 진행했다.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읽는 기회와 도서 관련 상품을 함께 받아볼 수 있는 기획이다.

또한 유어왓츄리드 자체적으로 반년 단위의 잡지인 You are what you read를 제작한다. 감수 및 편집을 서점에서 담당하며 서점을 방문하는 독자들의 기고를 받는다. 이 역시 커뮤니티 서점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독서 문화 중 하나다. 매달 한 번씩 진행되는 묵독 모임도 있는데, 이 모임에선 핸드폰을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를 밀어두고 조용히 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지금은 휴점하고, 같은 공간은 찻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21. 독립서점 '유어왓츄리드' 내외부

(7) 우분투북스

대전 유성구 어은동의 독립서점으로 2016년 8월에 개점했다. 원래 바였던

3) 창작자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곳을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구성했다. 우분투북스의 '우분투'란 단어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 뜻이다. 커뮤니티 책방을 지향하는 공간에 어울리는 이름이다.

도시 사람들은 늘 먹거리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하고, 농촌은 농사지은 농산물을 판매할 매개가 없어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책방지기인 이용주 대표는 이 두 고민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이 서점을 선택했다. 도시와 농촌의 각자의 고민에 중개자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이다.

건강 관련 단체, 식품 홍보대행사, 출판사와 잡지사에서 일한 경험 덕분일까, 책방은 건강, 생태와 관련된 책들로 가득 차 있다. 책은 대형 서점에서처럼 분야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키워드와 그에 관한 책들을 모아 진열해 놓았다. 이를테면 음식이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에세이, 소설, 기행문, 인문학 서적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매달 주제가 바뀌는 테마 서가에는 책과 전시물들이 진열된다.

책 이외에도 책방지기가 직접 방문해 인연을 맺어온 유기농, 자연재배를 고집하는 농가의 먹거리들에 대한 소개와 판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분투북스에서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갖는다.

그림 22. 독립서점 '우분투북스' 내외부

수익성이 크지 않은데도 책방이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이라고 이 대표는 말한다. 책방이라는 공간이 주는 의미와 위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책방지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다시 책방을 운영할 힘을 얻는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인연은 끈끈하다.

책방에서는 사회문제를 다룬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하며 대안을 찾아가는 실천 독서모임이 이뤄지고, 또 꾸준히 작은 전시들도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농산물 생산 현장으로 팸 투어를 계획 중이기도 하다. 파편화된 개인이 사는 도시가 아닌, 함께 사는 마을을 기대하며 작은 책방 안에서 고민을 이어가는 중이다.

(8) 이도저도

2017년 겨울에 문을 연 대전 유성구의 독립서점이다. 책은 책방지기의 취향에 맞게 장르별로 소수로 들여놓는다. 문학책과 과학책이 대부분이며, 나머지 책장은 손님들의 주문을 받아 채운다. 이도저도는 한 가지라도 특출한 능력이 없으면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세태가 안타까워, '이도 저도 아니면 뭐 어때. 하고 싶은 거 하자.'라며 시작한 서점이다. 작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서점을 운영하고 싶었다는 말이다.

서점에서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독서모임을 진행한다.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독서모임의 구성원은 대부분 서점을 여러 번 찾은 단골들이다. 자유롭게 책을 읽거나, 지정한 책을 읽고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큰 전문성이 요구되는 모임이라기보다는, 서점의 이름만큼 이도저도 아니어도 좋으니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독서모임이다.

책방지기는 태PD라는 이름으로 서점을 운영하는데, 여기엔 서점을 프로듀싱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책방 이도저도가 다른 서점과 다른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바로 서점 이도저도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점이다. 유튜브 채널에는

책방지기가 직접 읽어서 녹음한 오디오북과 이도저도 라디오가 있다. 이도저도 아닌 잡담일지라도 서점의 일상을 기록하겠다는 취지의 라디오는 영화, 책, 그 주간의 이슈, 그리고 서점 주인과 누군가의 유쾌한 잡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3. 독립서점 '이도저도'

(9) 프레드릭 희망의 씨앗

2017년 4월에 개점한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의 그림책 전문서점이다. 북극곰 출판사의 그림책을 취급하지만 다른 프레드릭 서점들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프레드릭 서점을 운영하는 북극곰 출판사의 취지에 공감해 허락을 얻어 서점 이름에 '프레드릭'을 넣었다. 또, 희망의 씨앗이 숲이 될 때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림책으로 위로와 웃음을 나누자는 뜻도 담았다.

그림책을 좋아하는 딸들과 엄마, 엄마의 엄마가 함께하는 그림 책방이라는 문구에 맞게 서점은 '그림책 테라피' 등 아이와 부모가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콘텐츠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 그림책 필사 모임, 주말 독서토론 모임, 강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림책 테라피'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하브루타' 모임까지 프레드릭 희망의 씨앗 서점의 한 달 일정표는 꽤나 빡빡하다. 한정된 공간과 바쁜 일상 때문에 참여가 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 모임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림책을 단지 아이들이 읽는 책, 으로 규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감동받을 수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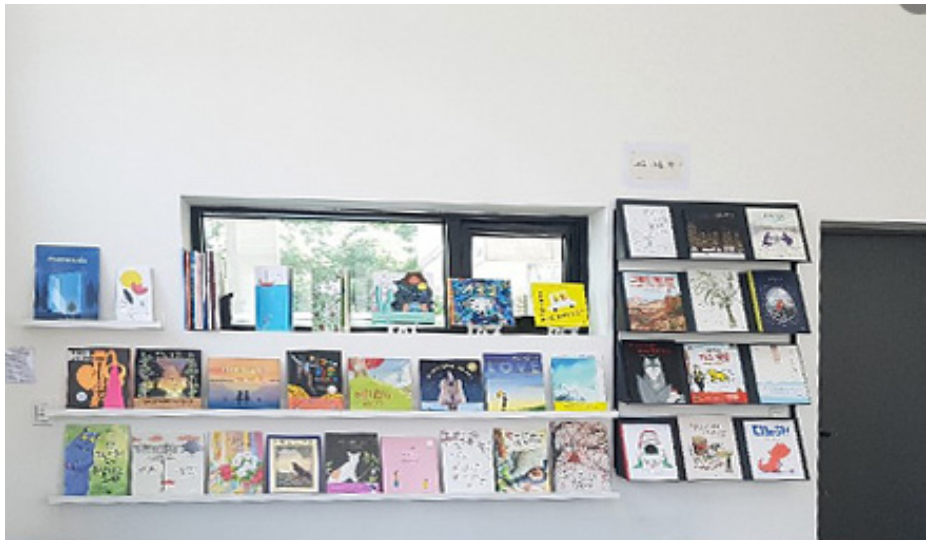

그림 24. 그림책서점 '프레드릭 희망의 씨앗' 내부

2) 대전 지역 독립출판의 현황

대부분의 독립 서점에서는 지역의 독립출판사에서 펴낸 책들을 중시하여 서가에 배치하고 관련된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독립서점과 독립출판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라 할 수 있다.

현재 대전에 적을 두고 본격적으로 독립출판의 기치를 내건 곳은 '스토리밥 작가협동조합', '월간토마토', 'BOSHU(보슈)', '모두의책' 등을 꼽을 수 있다. 얼마 전까지 독립서점이었던 30인의 서점은 코딩과 로봇만들기 등 IT공작소 겸 독서모임 공간을 제공하는 인문학 책방으로 갈마동에 개점했으나, 현재는 폐점하여 '30인의 출판사'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표 11. 대전의 독립출판 현황

출판사(조합)명	설립년	주소	전문 분야
스토리밥	2013	대전 유성구 장대동	원고기획, 취재, 출판, 글쓰기강좌
월간토마토	2007	대전 중구 대흥동	잡지, 출판, 문화사업
BOSHU(보슈)	2013	대전 유성구 어은동	원고기획, 취재, 출판
모두의책	2015	대전 중구 선화동	월간지, 출판, 동호회 운영

(1) 스토리밥 작가협동조합

2013년에 대전의 작가들이 모여 결성한 협동조합이다. 처음에는 작가들이 모여 글을 쓰고, 생활 안정 차원에서 각종 활동과 논의를 진행하던 모임으로 시작했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대전의 알려지지 않은 문화를 발굴해 내고 육성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둔다.

조합원은 방송작가, 시인, 아동문학가, 대학교수, 출판기획자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가 '책임작가'라는 이름을 걸고 글을 쓰는 형

태이다. 글을 쓰는 것만으로 돈을 벌기에는 한계가 있는 대한민국의 창작 시장 안에서 나름의 돌파구를 찾는 단체인 것이다.

스토리밥 작가협동조합이 하는 일은 한정되어 있지 않다. 각종 기관, 단체에서 외주를 받아 책자나 성과집을 제작하기도 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문화강좌와 낭독회, 워크숍을 기획해서 주최하기도 한다. 대전에 거점을 둔 협동조합이니만큼, 원도심 곳곳을 수면 위로 올리는 '원도심, 길에서 흔적을 찾다'라는 성과물을 책으로 발간하는가 하면, 은행동, 대흥동, 선화동 등 원도심 골목골목에 숨어있는 독립서점, 청년잡지, 민간 행사와 같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려는 작은 노력들을 취재해 격주로 지역신문에 기사를 싣기도 한다.

2017년 3월에는 스토리밥 문학선 1권인 'Polar Fix Project'를 출간했고,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숨쉬는 4·16'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3년간 매달 16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록했다. 그 삼년상의 결과물로 2017년 4월 16일, '4·16 기억의 숨'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그림 25. '스토리밥 작가협동조합'이 출간한 책들

(2) 월간토마토

대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문화잡지로, 2007년 5월에 창간호를 발행했다. 월간토마토는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다양한 활동과 그 결과물을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잡지이다. 대전이라는 지역만이 가진 공간, 그 지역만이 가진 사람이 만나 지역만이 가진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0년 북카페 '이데'를 인수하고, 2층에 문화공간 '딴데'를 열며 공연, 전시, 강연 등 다양한 사람을 끌어 모으는 공유네트워크 공간을 형성했다. 현재는 공정여행을 지향하는 또 다른 사회적기업인 공감만세와 합병해, 2017년 말, 건물 1층에 새롭게 공간을 냈다. 공간은 이전했지만 '아이디어'라는 뜻의 북카페 '이데'는 여전히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중 하나다.

2009년부터는 매년 월간토마토문학상을 진행, 중단편소설을 공모하고 선정해 월간토마토의 지면에 싣는 등 단지 출판에만 구애되지 않고 지역문화의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한 문화 사업은 재즈콘서트, 북콘서트, '대흥동 콩콩콩', '중앙로 예술포차' 등의 공연기획, 전시기획, 축제 기획과 플리마켓, 지역민을 상대로 하는 공공미술 등의 프로젝트까지 확장된다.

그림 26. '월간토마토'에서 출판한 책들

창간 이래로 꾸준히 기업 사보와 기관, 단체 소식지, 브로슈어 등을 제작하

던 월간토마토는 독립출판에까지 손을 뻗는다. 독립출판을 하는 곳으로서의 월간토마토는 일상적인 감동이 넘치는 도시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도시민의 삶과 가치를 담은 사회적 콘텐츠로 소통하려는 곳이다. 이전까지 월간토마토라는 월간지로 만났던 사람들과 공간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출판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6년 1월, 만나왔던 도시민의 자취를 묶은 첫 단행본 〈우리가 아는 시간의 풍경〉을 시작으로 4월엔 일본 지식혁신 탐방기 〈청년, 생각을 흔들다〉를, 9월에는 〈월평공원·갑천 생태도감〉과 〈대전여지도1: 중구편〉을 출간했다. 그 후 12월에는 월간토마토문학상 수상 작품집인 〈지극히 당연한 여섯〉을, 2017년 2월에는 과학액션 융합스토리 단편선인 〈당신이 죽어야 하는 일곱 가지 이유〉, 그 해 4월과 10월에는 〈청년, 생각을 흔들다 2〉와 〈대전여지도 2: 동구편〉을 연달아 출간했다. 2018년 5월에 출간한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구마모토 지진 현장에 가다〉 까지 현재 도서출판 월간토마토가 발행한 단행본은 9권이다.

공정여행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인 ㈜공감만세와 2017년 9월 합병해 사단법인 '모먼트'로 이름을 바꾼 후에도 꾸준히 월간토마토를 발행하며, 경제논리로는 다룰 수 없는 콘텐츠를 주목하고, 가치를 재구성하고 있다.

(3) BOSHU(보슈)

대전지역의 청년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잡지인 BOSHU는 2013년, 열 네명의 청년이 모여 시작됐다. 이듬해 3월, 계간지로 첫 발을 내딛은 뒤 2018년 9월에 10호를 발간하며 꾸준한 발걸음을 떼었다. '보라'는 뜻을 가진 충청도 사투리인 '보슈'는 꽤나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름이다. 청년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가는 잡지이다 보니 꾸준한 팀원의 변동이 있지만, 10대부터 30대까지, 청소년부터 대학생, 직장인까지 대전의 청년들이 꾸려가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보슈가 내거는 캐치프레이즈는 "What's your point of veiw?"로, 청년들에게 그들의 관점을 묻는다. 더 많은 이야기와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무가지를

고집해오기도 했다. 대전이라는 지역성을 살리기 위해 대전 내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지만, 절대 대전의 청년들에게만 초점을 맞춘 이야기만은 아니다. 어디서든, 청년들의 이야기는 곧 다른 청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 세대를 관통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생각을 매 호마다 사진과 글, 디자인을 통해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림 27. 대전의 청년잡지 '보슈'

협업 공간 '벌집'에서 만난 청년들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주관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청춘들을 위한 잡지 제작으로 응모해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무가지로 배포하던 보슈를 2016년 유가지로 전환하는 것은 알찬 읽을거리, 생각할 거리를 전달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 때문이다. 2018년 현재는 'Untitled'라는 보슈 정기구독자 그룹을 모집해 함께 달려가고 있으며, 얼마 전 텀블벅 프로젝트로 여성인물 특집호인 '방어흔으로부터'를 크라우드펀딩해 10호를 발간했다.

2. 대전 지역 독립서점의 실태와 정책 요구

독립서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들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독립서점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책적 요구사항을 들어보았다. 인터뷰 응답자는 다음과 같다.

표 12.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

성명	소속	성별	성명	소속	성별
이○○	헬로인디북스	여	○준○	도시여행자	여
○종○	사슴책방	남	○지○	도어북스	여
박○○	도시여행자	여	송○○	구름책방	남
조○○	삼요소	남	○신○	가까운책방	남
○용○	우분투북스	남	김○○	유어왓츄리드	여

1) 커뮤니티의 필요성 공감에서 출발

독립서점을 하게 된 계기와 목적은 면담자 대부분은 영리적 목적보다 지역성과 커뮤니티의 역할이었다고 밝혔다.

> 책방이 가진 기능성에 대해서 서로가 생각하는 . 생각의 교집합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도서관이랑 매칭해서 할 수도 있고, 꼭 그 공간을 활용해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희가 얘기했던 게 연계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 박○○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서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시민들이 좀 다가가는 부분이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공공도서관의 정보나 이런 것에 필요성에 의해서 시민들이 그동안 모이고, 같이 문화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연령에서 항상 5-60대의 시니어 분들에게 좀 몰리는, 그런 게 있고 독립서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문화행사에 세대계층이 좀 다양하고 다양하게 오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의 역할을 저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 박○○

2) 동호회 운영을 통한 공동체 형성 중시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 따라 독립서점에서는 대부분 독서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독서모임은 다른 분야의 동호회들에 비해 사회참여의식도 높고, 자발적인 네트워크도 구축하려 하는 등 문화의 생산과 수용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아 향후 점점 더 영향력과 적극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4. 독립서점과 독립출판사에서 운영 중인 동호회

이름	주최	결성년	인원	주기
리드 포 액션	우분투북스	2017	6	주1회
토요독서모임	우분투북스	2017	4	주1회
Pause	구름책방	2017	5	주1회
영화데이	구름책방	2017	12	월1회
그림책테라피	프레드릭	2017	8	월1회
그림책 하브루타	프레드릭	2017	8	주1회
책정산	유어왓츄리드	2016	7	월1회
묵독모임	유어왓츄리드	2015	7	월1회
묵독모임	도시여행자	2015	10	주1회
Touche	도시여행자	2017	4	격주1회
도시인문학모임	도시여행자	2017	10	비정기
대전사랑 문고사랑회	모두의 책		20	

대부분의 동호회가 처음 결성될 때에는 단순히 취미를 공유하거나 정보를 얻고자 하는 소박한 의도였다.

> 책을 혼자서 읽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책을 계속 읽다보면 자기가 드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니면 자기가 새로 알았던 사실이나 지식 같은 것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하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책을 읽는 지도 궁금했었구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지?" 하는 생각도 들게 되어서 같이 한 번 읽어 보고 싶었어요. - 박○○

> 독서동아리는 아니고 여기서 제가 했던 건 독립출판물 읽고 짧게 리뷰 쓰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기수별로 한 열 명 정도 모집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씩 리뷰를 보내달라, 오프라인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같이 독립출판물에 관해서 얘기하고 했었는데 지금 3기까지 하고 조금 멈춰있긴 해요. 점점 사람 모으기도 힘들고 리뷰도 잘 안 보내주고 그래서..... 보통은 제작자. 자기 리뷰를 받고 아, 리뷰가 이런 점이 좋네? 나도 누군가의 리뷰를 적어줘야겠다 해서 1기에 리뷰를 받았던 분이 2기에 신청하고 그랬던..... -이○○

하지만 모임의 결성 당시에 이미 사회적으로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열망이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결성 당시 희미한 목적의식도 모임을 진행하면서 강화되기도 한다.

> 저희 모임의 목적은 같이 모여서 책을 읽고 책 읽는 문화의 활성화와 독서를 증진. 요새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으니까 모임을 통해서라도 책을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와서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책을 읽다가 든 생각 이런 것, 사고의 확장 혹은 지식 습득 이런 것도 말하고 있

고요..... 저희 모임 취지도 처음에는 느슨한 모임이라고 해서 거의 개인정보는 밝히지 않고 최소한의 닉네임만 밝히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전에서 하고 있는 행사나 문화 활동도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서 같이 가거나 해요. -김○○

다양한 책모임이 생겨날 때쯤에 저도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도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주제로 도시인문학이라고 정하고 관련된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했구요. -박○○

동호회는 대부분 하나의 취미를 공유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다. 내가 처하지 않은 상황을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는 것에서 흥미를 느끼고, 비슷한 취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삶의 큰 활력소로 여긴다. 다양한 이들이 모이는 만큼 인간관계상 적당한 거리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데 오히려 이것이 부담을 줄여준다고 한다.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대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저는 장점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 학교에서 교수님과 얘기를 한다면 딱딱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었고. 1회성 모임이라서 좋은 이유도 있어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적당한 관계 안에서 예의를 갖추는 정도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박○○

아무래도 공통된 관심사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각들도 많이 들어볼 수 있고 대전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일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일 외적인 다른 공간에서 굳이 시간을 내서 같이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같은 걸 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김○○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장점은 모임을 운영할 때 가장 어려운 해결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모임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폐쇄성을 가져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도 제한을 해도 막기는 어렵고, 누군가를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불편한 일인데 모임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감행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정말 이걸 원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성 친구를 찾기 위해서 모임을 온다던가, 그럼 그 날의 분위기는 완전 달라지거든요. -박○○

단순 이성목적이나 술 먹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가끔.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서, 책이 아닌 술이나 이성교제 이런 걸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또 다양한 사람들이니까 생각도 다 다양할 것이니까 생각한 것 강요하거나 정치나 종교 강요 이런 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김○○

3) 콘텐츠 특성화에 대한 고민

독립서점이 기존의 오프라인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특성화를 통해 독서 수용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서점 운영자들은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근데 그게 장르 구분 없이 저희는 개인출판물이면 다 받는 걸로. 이거에 대한 고민도 너무 많았어요. 요즘 독립출판물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아, 어느

테마를 갖고 해야 되는 건지, 뭐 강아지, 고양이 그런 걸 테마를 갖고 모아야 되는 건지, 그러다가 저는 독립출판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그림책이 좋고, 그러니까 이게 장르 구분 없이 어? 이게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재밌네, 그런 것들은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독립출판물을 다 받았는데, 지금은 약간 기성출판물과 비슷하지 않은, 거기서 낼 수 없는 색이 담겨 있는 걸 좀 받으려고 해요. 그건 장르 구분 없이. -이○○

앞으로도 이 콘텐츠는 저는 더 주기적으로 지속하면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연령대에 상관없이, 책에 대한 다양한 접근성을 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해요. 이걸 통해서 책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돗자리독서회는 특정 카페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어떤 비영리 법인도 아니고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허물어진 사례라고 생각해요. 소비자인데, 기획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기획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사례로 정말 특수하다고 생각해요. -박○○

독립출판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독립서점만의 다양성이라는 콘텐츠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지역 독립출판물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쏠림 현상도 있고, 잘 되는 것만 잘 되는 편차가 굉장히 심한 편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나 독립출판물만 취급하는 '도어북스' 등은 더더욱요. 저희는 일반출판물을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도어북스'를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미 역할을 잘 하고 계신데. 사실 독립출판물이 대전에서 더 많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2-3년 전에 끊겼어요. '보슈'에서 끊긴 것 같아요. -○준○

독립서점에서 각자 진행하고 있는 강연이나 저자와의 만남 등 독자와 책 사이의 거리를 줄이려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금 더 좁은 공간에서 그 정도 인원으로 해서 조금 더 책 서점이니까, 작가나 가수 분들이나 친밀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미디어에서 인터뷰는 접할 수 있지만 직접 만나 뵙는 경우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이니까 책과 관련한 이런 행사들이 관에서 하는 것보단 조금 더 다양성의 측면에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조○○

저희 책방에 오시는 분들 중에 "왜 행사를 9월 10월에 몰빵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 년 내내 조금조금 쪼개서, "거기 가면 늘 책 관련 행사가 있다"라고 (각인되면), 한밭수목원 같은 데서 상시적으로 출판사든 독립서점들이 돌아가면서 그 장소를 거점으로 항상 이런 돗자리 행사를 하던, 뭘 하던 매월 몇째 주는 뭐가 열린다는 걸 명시해서, 상시적인 책과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다는 걸 (알려 주는 게 바람직해요)..... -이○○

독자와 책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과 출판물의 다양성 확보를 함께 겨냥한 활동도 찾아볼 수 있었다. 직접 독립출판물 제작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 출판물의 다양성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다.

간디학교에서도 가끔씩 아이들이랑 같이 오셔서 독립출판물을 제작하고 싶다고 함께 오시기도 하고, 중학교에서 학교 방과 후 수업처럼 특별활동 같은 걸로 독립출판 관련되게 요청해 주셔서 하기도 했고. 지금은 마케팅공사에서 하고 있는 예술가와의 산책, 대청호 거기서 저희한테 외주를 주셔서 따로 나가서 책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개인이 오셔서 책 출판을 문의해 주셔서 독립출판물을 제작하기도 하고, 저희가 따로 책 만들기 수업을 진행해서 그분들이 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도 지속해서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은 그 사람들의 몫이니까. -○○선

4) 문화운동에 대한 자각과 네트워크 노력

인터뷰에 응한 독립서점들 대부분은 문화생산의 소비와 매개, 생산의 관계를 성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장기적으로 제도나 문화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하는 등 문화운동의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

> 저는 막 일부러 목적성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구요. 그냥 원래 독립출판물을 좋아했고 그 당시만 해도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독립출판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 사이트도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책방하면서 그냥 물론 책 판매 하는 일이 주 업무긴 하지만 좀 독립출판물을, 이걸 어떤 사람이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보면 일반 기성 출판물이랑은 다르잖아요. 이렇게 얇은데 비싸기도 하고, 보기도 힘들고. 그런 독립출판물의 특색을 알려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러면서, 물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책 판매만 하고 있지만, 이 안에 조그맣지만 전시공간도 운영하고 있고, 만약 제작자 분들이 나는 고양이 그림을 그리는데 관련해서 같이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워크숍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연계된 활동을 일부러 한다기보다는 누군가 필요하면 이 공간에서 할 수 있게 마음대로 쓰라고, 자유롭게 그렇게 하곤 있는데.....-이○○

> 각자 도시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관점들을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도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도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행정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이 있긴 했는데, 그건 단계적인 거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도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

(모임에서 토론한 내용들이) 정책 반영이 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성심당을 건너갈 때 횡단보도로 가는 사람보다 그 옆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횡단보도를 2배 사이즈로 키울 순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이요. 엄청 사소한 건데,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요. 이런 모임에 행정을 집행하시는 한 분이 섭외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다음에 제안을 하면 좋겠죠. -○준○

근데 저는 충분히 독서인구 증진이나 독서문화정책을 끌고 나간다거나 공공이 지금 문화예술 기획을 하고 있던 걸 우리가 자립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서브컬처의 영역. 그게 결국은 문화의 다양성으로 시민들한테 엄청난 것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논의에서 많이 빠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오히려 공공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많이 꺼내야 하는 시기인 것 같고, -김○○

또한 독립서점의 안정된 운영과 더 다양한 문화운동의 연계를 위해 독립서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나아가 독립서점끼리 뿐만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등 기관과의 협력까지도 내다보고 있었다.

독립서점의 기준에 대해서도 사실 모호하고, 정신이 독립적인 것이냐, 혹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문화예술기획을 하고 있느냐 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후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긴 해요. 이번에 (독립서점) 지도를 만들면서 열 개의 팀이 생겼는데 열 개의 팀이 지금 현재 네트워킹이 되고 있어요. -김○○

사실상 독립출판서점은 더더욱 창업비용이 안 드는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독립출판서점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속가능성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폐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대전도 저는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빠르게 기존에 하던 분들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떻게 지속해서 끌고 갈 것이냐를 논의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태

독립서점이 좀 강점인 것 같은 것들은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이런 공공의 특성을 띄지 않는 독립서점들의 행사에는 시민들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밸런스를 잘 맞추면 똑같은 겹치기 행사, 이런 거 연계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콘텐츠의 다양화나 질적 향상에도 그 부분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서관이랑 연계를 할 수 있어야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또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규모 있는 행사를 하는 것보다 서점들이랑 연계해서 같이. 대구가 그걸 좀 잘 하고 있어요. 대구의 독립서점 '폴락'이 작년에 도서관 사업을 하나 했었는데, 그렇게 조금 큰 단위의 행사들은 독립서점에 공간의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연계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박○○

5) 시장의 근본적 진입장벽에 대한 어려움

그 외에도, 독립서점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와 확대되지 않는 독서인구의 파이, 체인과 온라인 서점에 가로막힌 독립서점 운영의 어려움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인스타그램에, SNS에 서점은 막 떠서 돌아다녀서 서점이 잘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 서점이 돌아가고 있는 구조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죠. 지금 부산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어찌 보면 광역시급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점의 규모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서울이 거의 독립서점 내지는 작은 서점에 서울경기가 거의

60%에서 70%가까이가 된단 말이에요. 실지로 대전 안에 전체에 10개의 독립서점 내지는 작은 서점이 있다. 사실은 이 각각의 독립서점이 어찌 보면 세월이 오래됐던 아니면 세월이 짧던 간에 생태계 안에서 각각 고생해서 먹고 사는 것도 사실 지금 만만치 않은 현실인데다가 그들끼리 네트워크를 해서 함께 무얼 만들어가고 이거 할 수 있는 여력, 사실 별로 없어요. 일단 생존의 문제를 봐도, 사실은 독서 인구 전체 파이가 커져야지 지금은 독서인구 파이는 고정적으로 그대로 있어요. 지금은 기존의 대형 서점, 온라인 서점에 갔는데 별로 재미없었던 친구들이 이쪽으로 약간 빠져나온 거뿐인 거예요. -이○○

제주도에 미친 듯이 서점이 생겼지만 지금이야 붐업해서 생기는 거고, 유원지, 관광지 안에 있는 서점의 생존 여부는 사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서점을 방문하는 문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결국엔 그들 서점들이 관광객들만을 바라보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버틸 수 있는가 생각했을 때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뭔가 새로운 것 같다고 또 와. 근데 문제는 그렇게 와서 새로운 독립서점을 열고 하는 것들이, 전체 생태계 입장에서 봐서는 생기면 물론 좋기야 하겠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여는 새로운 서점들이 자기 나름의 독자를 새로 만들고 전체 시장 파이를 키우는데 일조하는가 보면 결국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읽는 독자가 새로 생긴 서점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찢어지는 것일 뿐이지, 새로운 독자층이 유입돼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준○

6) 공공 영역의 정책 지원 필요

독립서점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을 세밀히 지원하는 정책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근에 도시마케팅공사도,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도 학습단계나 학습단계를 넘어 선 조직화 단계라던가 정책이 나오고는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단계의 아래 단계도 필요한 것 같고. 예를 들어, 훨씬 더 작은 단위의 실험들을 할 수 있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막상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고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기록들, 지속했던 부분들이 쉽게 인정이 돼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사회 공동체들이 훨씬 더 눈에 많이 띄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독서모임이다 보니까 학습단계에서 조금 더 진화하고 싶은 욕심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연구자들을 만나고 싶다던가, 책의 주인공, 저자들을 만나고 싶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지원 이런 건데. 이걸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를 역으로 고민하면 저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정책적으로 헌터들도 많고 그래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박○○

현실은 여전히 독립서점에 대한 관공서의 무관심이 크다고 느끼고 있다. 지역의 독립서점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려면 기본적인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참고자료조차 없기 때문이다.

('힐링 북페스티벌'의 경우만 보더라도) 보라매공원, 서구청 보라매공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서구청 1,2층과 지하 1층으로 쓰는데 독립서점이 지하 1층으로 가는 거죠. 접근성이 제일 떨어지는. 그냥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떤 논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는 그나마 좀 해소가 됐지만 작년에는 책을 판매도 못 했어요. 전시회밖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페스티벌을 기획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변경이 안 되면 결국에는 지속가능성을 페스티벌 안에서 못 찾게 되는 거죠. - ○준○

대전에 어떤 책방들이 있고 어떤 책들이 만들어지는지. 생태계를 파악하려

면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자료들이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들이 안 나오게 되고. 지금까지도 책 문화나 이런 사례에 기반한 리서치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전무후무했다는 게 이야기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정책을 가져가기 전에 시에서 디테일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

또한 독립서점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공간적, 재정적, 인력적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들도 제언했다.

독립출판이나 작은 단위의 서점에서 재고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개발을 하고 있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건데 가격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독립출판물은 관리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부처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

도서를 새로 구입하거나 확충하는 재고량을 늘릴 수 있도록 일정부분 지원을 하는 걸 프랑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30에서 300제곱미터 규모의 독립서점에. 또 모범서점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역량과 책임을 다하는 독립서점한테 지역 실정에 맞게 제도적인 혜택을 좀 가지고 가야 한다는 이야길 좀 드렸어요. -○은○

지역 내에서, 특히나 서점 주인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지역화폐. 공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전에 굉장히 많은 글쓰기 대회. 거기에 시상이 문화상품권인데, 이런 것들은 지역으로 들어올 확률이 낮잖아요. 하다못해 이런 정도라도 공공이 매입하는 것도. 저는 경기도가 지역서점 화폐를 최근에 발행을 했는데, 이것들을 작은 단위에서라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대전에 사회적 경제나 지역화폐를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학습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좀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 -○○태

순천이랑 청주가 이미 조례로 다 통과시킨 부분인데, 순천은 청년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년에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50%를 책 구매에 쓸 수 있거든요. 청주에는 서점의 규모는 잘 모르겠지만 중,대형 서점의 경우에는 지역출판물을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는데, 저는 벤치마킹만 빠르게 해도. 대전에 청년인구가 50만 명이나 되는데, 이건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김○○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선대표님도 그렇고 다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역 산학 협력단이나, 이렇게 인턴쉽을 왔으면 좋겠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산학 협력단 안에 인턴쉽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몇 번 같이 했었어요. 배재대학교 같은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해 보니까 이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모델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영

출판산업진흥원에서 이번에 인문 관련된 졸업자들과 서점을 매칭하는 사업을 하반기에 냈는데 단위가 되게 짧아요. 이런 것들을 1년 단위로 프로젝트처럼 연계할 수 있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서 기획자를 양성하는 측면도 있고. … 내가 한 명 더 있으면 더 많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같이할 인력이 없어서 버거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책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공연장예술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기획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서점, 출판계에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잘 없어서. -○○영

그 외에도 특별히 공공도서관과 독립서점 간의 연계로 얻을 수 있는 이점들과, 공공도서관이 지역출판물과 독립출판물을 위해 해야 하는 역할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요한 건 이 독립출판물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와서 세상에 선을 보일 수 있는 스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면, 대한민국에 수많은 공공도서관들과 작은 도서관들이 있어요. 지역마

다의 대표 거점도서관이라는 곳도 있고. 대전에 한밭도서관을 포함한다면. 이 도서관들이 적어도 최소한 '도어북스' 같이 이런 독립출판물을 다루는 서점들에 들어와 있는 책들에 대한 아카이빙을 해 줘야 한다는 거야. 지역도서관이든, 구에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는 급의 도서관들은 지역에서 일반적인 도서자료를 받아서 서비스해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 뭐 이쪽 지역의 토착화되어있는 역사들, 아니면 설화나 민담만 수집해서 만들어내는, 향토사학자들이 수집해서 만들어내는 자료들, 아니면 대전이 베이스가 돼서 만들어낸 이런저런 자료들을 아카이빙 차원에서라도 어쨌든 소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실지 전체 유통구조 안에서 대부분 출판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서점에서 한권씩만이 아니고 도서관에서 한 권씩만 사 줘도 초판은 팔릴 텐데, 가 많아요. 그럼 독립출판 같은 건 전국에 있는 도서관도 필요 없고 그냥 지역에 있는 도서관 몇 군데라도 대전 안에 예를 들어 20개가 있다면, 그 정도의 규모만이라도 아카이빙을 기본적으로 해 주고. 이게 여기 들어왔다가 한 번 딱 돌아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안 찍으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책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면. -이○○

서울에서 제가 알기로 아마 몇 군데 도서관의 사서나 관장급의 한 두 명이 독립출판물에 대해서 3-4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아카이빙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독립출판물을 유입시키는 걸 고민하고 있고, 경기도 쪽에선 느티나무도서관, 이런 정도에서 독립출판물들을 자기들 공간 안으로 넣어야 하는데, 경로를 잘 모르니 어딜 통해서 어떻게 구입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연계라는 것들이, 행사와 행사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이런 형태의 자료적 가치와 책을 중심으로 한 것이 같이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요. -○○주

도서관이 그렇게 해서 일정 정도 스페이스 안에 독립출판물을 진열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바깥에다 열어줘야 해요. 독립출판서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제약적이고 일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통하는 공간과 스

페이스도 일부고요. 이걸 공공연한 공공기관 안에서 이런 출판물이 우리 지역에도 나오고 있다거나 이런 출판물이 나와서 이렇게 유통되고 있다는 걸 오픈스페이스 안에서 보여줘야 하는데 독립출판 서점이라는 공간으로만 제약해놓고 하기에는 사실. 갈 수 있는 사람과 인연과, 공간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 못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공공도서관이 해 줘야 할 영역과 몫이죠. 온 자료에 대한 아카이빙과 그 자료가 대출되고 활용되고 이용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DSI

대전지역 독립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대전시의 정책지원 방향
2. 전략 사업

5장

1. 대전시의 정책지원 방향

1) 상업적 성격보다 문화적 성격으로 바라봐야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독립서점은 책의 진열과 판매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인 서점의 기능을 넘어, 대형서점에서 볼 수 없는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개성을 담고 있다.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공연의 장으로서 지역문화예술의 거점공간으로서 기능하기도 하면서 책을 매개로 한 문화공동체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대전의 독립서점은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콘텐츠로 책과 공간을 큐레이팅 하고 독자 공동체를 자체적으로 형성하고 있지만, 대전시 차원에서의 지원은 전혀 없다. 타 광역시의 경우 독립서점의 문화적 기능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독립서점·지역서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대전시도 독립서점을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구체적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연구를 통해 필요한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2) 공공 기관과의 거버넌스,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야

대전 지역의 독립서점과 독립출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도서관 등 공공기관과의 적극적 제휴가 필수적이다. 시청 등 대표 관공서와 대전 전역에 분포된 대학들과의 제휴를 일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영역의 작은도서관 등과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 전략사업

대전지역에서 운영중인 독립서점들은 문화적 커뮤니티와 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 문화운동적 욕구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이와 같은 자발적이고 건강한 움직임에 대해 과감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사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1) 대전 독립서점·독립출판 페스티벌 개최

독립서점 및 독립출판 정책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독립서점 및 독립출판의 담론·협력의 장으로서 종합 페스티벌을 개최하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독립서점 및 독립출판 참여 주체, 관계자, 전문가 및 일반 시민 대상으로 독립서점 및 독립출판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컨퍼런스, 워크숍 등을 운영함으로써 민-관, 민-민 거버넌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추진한다.

구체적 시기는 매년 봄, 가을에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도서축제의 기간에 맞춰 “대전독립서점 및 독립출판 주간”을 개최하는 방안과, 오히려 도서축제의 비수기인 여름 등을 활용해 단독 추진함으로써 차별성을 꾀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 할 필요가 있다.

독립서점 및 독립출판 컨퍼런스·워크숍은 국내외 독립서점 및 독립출판 관련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독립출판, 독립서점, 지역서점, 작은서점 등 대안적 문화운동에 대한 신념과 방법론을 공유하는 장이다.

워크숍 프로그램에는 시민 누구나 참가하여 나만의 책만들기 등 책과 가까워지고, 지역출판 및 독립서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행사들을 다수 구성한다.

2) 지역출판 판매처 상시 운영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도서 축제가 열리지만, 그 효과는 높지 않다. 도서정가제와 맞물려 있는 한계도 있지만, 무엇보다 일방적 기획으로 진행되는 일회성 행사로는 시민의 독서문화를 근본적으로 증진하는 데 무리이다. 독립서점 공간을 넘어 공공기관 등을 활용해 지역출판물을 상시적으로 판매하는 고정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독립서점의 대체제가 되지 않도록 독립서점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며, 월 1회 정도의 주기로 고정적 플리마켓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안정적이라 판단된다.

3) 공공도서관, 공공기관 내 지역출판 전시코너 운영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지역출판물을 시민들이 접할 기회를 최대한 늘리는 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세 축의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곳은 공공도서관과 공공작은도서관이다. 대전시에는 현재 24곳의 공공도서관과 20여 곳의 공공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각 도서관에서 1~2권씩 독립출판물을 우선 구매한다면 독립출판의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자료실 내부에 독립출판코너를 별도로 조성한다면, 다양한 독립출판물을 알리면서 동시에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대전시청, 각 구청 등이다. 현재 대전시청 등에서는 정기적으로 로컬푸드를 전시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으로 독립출판물을 판매한다면 대전시 공공기관의 문화적 품격을 대외적으로 높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각 대학의 도서관에서 지역출판물을 구입하고 비치하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독립출판물에 가장 관심이 높은 수요층은 청년세대이

다. 대학도서관에서 지역출판물을 자주 접한다면, 청년세대의 관심을 더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4) 생활문화·문화예술교육 민간 허브로 독립서점 역할 강화

현재 대전 지역은 문화예술교육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다. 독립서점을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면, 시민의 생활문화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문화예술향유의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사업주체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기획자, 강사, 문화 활동가)과 독립서점·독립출판 운영자, 작가가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한다. 이를 위해 대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독립서점(8개)과 작은도서관(42개)중 일부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과 문화시설간의 민-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간 작은도서관과 독립서점이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운영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추진 절차로는 협력 단체를 선정하고 단체별 지원액 결정한 후 독립서점과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여 민-민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후 공립도서관 등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거점별 특성화와 교육프로그램 역할 분담을 조율한다. 사업과정에서 공동으로 홍보 및 모집 절차를 진행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 문화누리카드와 취업희망카드가 결합된 청년 지역문화 카드 발급

이 방안은 독립서점·독립출판에만 특화된 사업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속한다. 대전시는 현재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청년들에게 구직활동과 관련한 준비금을 지원해주는

‘청년취업희망카드’를 운영 중이다. 청년취업희망카드는 학원수강료, 교재구입, 시험응시, 면접비 등 직접비와 함께 교통비, 식비 등 간접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이다. 하지만 일자리문제뿐만 아니라 다수의 청년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정서적 소외감이 축적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전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기본권의 측면에서 청년의 문화 활동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에 청년취업희망카드의 자매사업으로서 대전시 청년의 문화예술 관람비, 문화예술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청년 지역문화카드 사업을 도입한다면 단순한 휴식과 여가의 개념에서 좀 더 확장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다만, 초기에 문화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국가적으로 도입되었던 문화상품권이 소비활성화를 위해 지나치게 사용 가능처를 확대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상실한 사례를 돌이켜볼 때, 청년 지역문화카드의 사용 가능처는 철저하게 지역문화예술(공연, 전시 등)에 국한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소비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기에 대전지역의 독립서점과 독립출판에 대한 소비를 포함시킨다면 독립서점·독립출판의 자생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 대전 독립서점 및 독립출판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위와 같은 전략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제도의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에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지역서점을 통해 독서문화를 증진하는 지원방안을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늦게 출발하게 되더라도, 대전시는 이들과 보조를 맞추는 단계를 넘어 지역서점 뿐만 아니라 독립서점·독립출판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독서문화를 높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강영석(2005). 한국 문화운동의 변화: 부문운동에서 시민문화운동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논문.

김승일(2015). 네이버에 '독립 출판 서점'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해보세요 많아지고 있어요. 〈실천문학〉 2015.5. 266-273.

김진아(2016). 동네서점 스타트업처럼. "2016 지역서점 활성화 세미나" 발표문. 1-20.

배길남(2016). 독립출판서점 탐방기. 〈오늘의 문예비평〉 2016.6. 176-195.

오세섭, 한상헌(2016). 유통자 중심의 영상문화운동 사례 연구. 〈언론과 사회〉 24권 4호. 53-97.

이건웅, 박성은(2017). 타이완 독립서점을 통한 도시재생 사례.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2017.12. 23-26.

장은수(2018). 독립서점, 동네로 돌아오다. 〈머니〉 153호.

최준란(2017). 이태원 책문화공간의 공간적 의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2017.12. 53-56.

한국서점조합연합회(2016). 〈선진국 지역서점 활성화 활용사례 분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수진, 김상헌(2017). 독립서점 사례 분석을 토대로 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2017.6. 231-234.

-온라인 자료

공유대전 (한대철) 2016.07.01. "묵독 모임으로 여유 찾으세요". http://daejeonshare.kr

굿모닝 충청 스토리밥 작가협동조합 2018.06.20. "대동초등학교 앞에 동동 떠 있는 흰 구름 한 뭉치"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91922

나와유의 오감만족 이야기 (구아영) 2015.12.15. “공유를 실천하는 동네서점 'You are what you read'”. http://daejeonstory.com/6786
네이버 블로그 2018.03.07. 대전광역시 서구청.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irst_seogu&logNo=221223685999&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네이버 블로그 우분투북스 2016. 09. 05 “〈우분투북스〉,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작은 책방”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ubuntubooks
단비뉴스 (박성희) 2015.09.23. “여기가 대전의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85
대전일보 (강은선) 2018.01.15. “주인 취향 '멋'대로…'독립서점' 작은 문화공간의 '멋' 물씬”.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93890
별별이야기 브런치 (한대철) 2016.09.02. “당신이 읽은 책은 당신 그 자체다.”. https://brunch.co.kr/@birlzip/23
삼요소 인스타그램 피드.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irst_seogu&logNo=221223685999&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석류 브런치 2018.07.07. “대전을 여행하는 곳, 도시여행자 上,,下” https://brunch.co.kr/@fantasma/326, https://brunch.co.kr/@fantasma/327
오시내 월간토마토 12월 128호 2018.02.02. “ 너와 나의 거리, 당신과 책의 거리 _가까운 책방“ http://tomatoin.com/app/contents/view?md_id=space&code=943&page=1
오시내 월간토마토 7월 123호 2017.07.04. “구름책방_모두의 마음에 단비가 내린다“ http://www.tomatoin.com/app/contents/view?md_id=space&code=877
홍주일보 (한관우) 2016.07.14. “대전 원도심 동네책방 ‘도어북스’ 소통하는 문화사랑방”http://www.hj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49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28
www.dsi.re.kr

ISBN : 979-11-6075-092-8 93300